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중등교원의 국악연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조 영 선

초·중등교원의 국악연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김 명 속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조 영 선

인 준 서

조영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김미숙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김명숙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문 현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악연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악연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악연수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 교원 60명과 중등 음악교원 60명의 설문문을 통하여 현재 교사들의 국악지도 능력과 국악 연수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악연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프로그램들이 짧은 연수 시간과 많은 계획인원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들도 편협한 실정이었다.

둘째,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모두 음악시간에 국악보다 양악을 많이 수업하며 많은 교사들이 국악 지도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교사 자신의 국악 지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많은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들이 멀티미디어 자료에 의존하여 민요나 전래동요를 지도하고 있었다.

셋째,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교사의 국악지도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악연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현재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국악 연수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국악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들의 연수를 받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나에게 기회가 온 적은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포기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악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받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연수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은 국립국악원과 초·중등 사

물놀이 교육연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가 만족스러웠던 이유를 살펴보면 좋은 환경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진, 소규모 인원의 효율적인 수업과 수준별로 진행되는 수업, 현장에서 적용·지도가 쉬운 내용의 수업 등의 이유였다.

여섯째, 국악연수를 받은 대부분의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만족도는 중등 음악교원 보다 초등교원이 더 높았다. 연수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으로는 초등 교원의 경우 ‘방학 중에만 편중된 프로그램’이,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본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일곱째, 바람직한 국악연수의 요건으로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적정한 연수 인원 확보 및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과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원하고 있었다.

여덟째, 국악연수가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의 실제 수업지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국악연수 운영 실태와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실태조사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악연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악연수의 기회를 늘리고 방학 중에 편중된 연수프로그램을 분산하여 학기 중에도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악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사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이 학교에서 국악을 지도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들의 실제적인 국악교육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연수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넷째, 국악 연수 프로그램을 학교급별로 구성하여 학교급에 맞는 전문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하며 적정한 연수 인원과 충분한 연수 시간을 확보하

여 효율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연수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진행하여 교사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업 내용이 연계가 되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 문제 | 3 |
| 3. 연구의 제한점 | 3 |
| 4. 선행 연구 고찰 | 4 |
| II. 이론적 배경 | 8 |
| 1. 교원 연수의 이론적 기초 | 8 |
| 2. 국악연수에 관한 고찰 | 13 |
| III. 연구방법 | 31 |
| 1. 조사대상 | 31 |
| 2. 조사도구 | 32 |
| 3. 절차 및 자료처리 | 34 |
| 4. 조사결과 | 34 |
| IV. 연구 결과 | 65 |
| 1. 초·중등 교원의 국악지도 능력 실태 | 65 |
| 2. 국악연수에 관한 교사들의 의견 | 66 |
| 3. 국악연수 개선방안 | 69 |
| V. 결론 | 73 |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 | |
|-------------------------------------------------------------|----|
| <표 II-1> 지역청·본청·직속기관 특수 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 국악 관련 프로그램 현황..... | 19 |
| <표 II-2> 초등학교 특수 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 국악 관련 프로그램 현황..... | 20 |
| <표 II-3> 서울교육연수원(외부기관) 특수 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 국악 관련 프로그램 현황..... | 21 |
| <표 II-4> 교육연구정보원 특수 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 국악 관련 프로그램 현황..... | 25 |
| <표 III-1> 연구 대상자 분포..... | 31 |
| <표 III-2> 설문지 문항 구성..... | 33 |
| <표 III-3>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음악시간 수업내용 중 양악과 국악의 비율..... | 35 |
| <표 III-4>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을 지도하는데 느끼는 어려움 정도..... | 36 |
| <표 III-5>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 37 |
| <표 III-6>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국악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 37 |
| <표 III-7>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장구나 단소 실기 지도 능력 정도..... | 38 |
| <표 III-8>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민요나 전래동요 지도 방식..... | 39 |
| <표 III-9>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연주 가능한 국악기 개수..... | 40 |
| <표 III-10> 초등교원이 연주 가능한 국악기..... | 41 |

| | |
|----------------------------------------------------------|----|
| <표 Ⅲ-11> 중등 음악교원이 연주 가능한 국악기..... | 41 |
| <표 Ⅲ-12>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생각하는 국악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42 |
| <표 Ⅲ-13>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생각하는 교사들의 국악연수 기회 | 43 |
| <표 Ⅲ-14>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개인연수 여부..... | 44 |
| <표 Ⅲ-15>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개인연수 이유..... | 45 |
| <표 Ⅲ-16>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수강여부..... | 46 |
| <표 Ⅲ-17> 초등교원의 연수 수강 횟수..... | 46 |
| <표 Ⅲ-18> 중등 음악교원의 연수 수강 횟수..... | 47 |
| <표 Ⅲ-19> 초등·중등음악교원이 그동안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 48 |
| <표 Ⅲ-20>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강 여부..... | 49 |
| <표 Ⅲ-21> 초등교원이 원하는 국악연수 프로그램..... | 50 |
| <표 Ⅲ-22> 중등 음악교원이 원하는 국악연수 프로그램..... | 50 |
| <표 Ⅲ-23>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참여 목적..... | 51 |
| <표 Ⅲ-24> 초등교원의 국악연수를 받은 기관..... | 53 |
| <표 Ⅲ-25> 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를 받은 기관..... | 53 |
| <표 Ⅲ-26> 초등교원의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과 그 이유..... | 54 |
| <표 Ⅲ-27> 중등 음악교원의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과 그 이유... | 55 |
| <표 Ⅲ-28>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56 |
| <표 Ⅲ-29>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운 점..... | 57 |

| | |
|--------------------------------------------------------------|----|
| <표 III-30>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연수 교육내용과 교과서 내용의 부합 정도..... | 58 |
| <표 III-31>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바람직한 국악 연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 | 59 |
| <표 III-32>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연수가 수업 지도에 도움이 되는 정도..... | 60 |
| <표 III-33> 초등교원의 국악 연수 내용이 지도에 도움 받은 정도..... | 61 |
| <표 III-34> 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연수 내용이 지도에 도움 받은 정도 | 62 |
| <표 III-35>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연수가 학생 국악교육 지도에 도움 이 되는 점 | 64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I-1] 교원연수의 개념 모형 | 10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선조들이 이룩한 전통문화를 후손들이 어떻게 계승, 향상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통문화가 더 발전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전통문화의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의 모든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남의 것과 구별되는 고유성과 전통성이 존재할 때 그 음악은 더욱 값지고 귀한 것이 된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유성과 전통성을 가진 음악이 있다. 보통 국악이라고 불리는 우리음악이 그것이다.¹⁾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음악을 과연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 음악의 위상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국악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국악을 외면하는 사람들만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악교육의 문제, 주요 방송매체의 전통 음악 방영 회피 등 복합적인 요소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의 문제가 가장 큰 측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꾸준히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외국과의 문화전쟁에서 뒤지지 않고 문화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나아가서는 문화 수출로 인한 국가의 위상을 높게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요, 교육자로서의 책임이라

1) 신대철, 「우리음악, 그 맛과 소리깔」(서울: 도서출판 민속원, 2003), 책머리에.

할 수 있겠다.

교육과정에서는 국악교육을 강조하여 음악 교과서에서도 이미 국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 우리 음악의 가치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국악교육을 강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수업을 하는 교사가 국악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교사들이 4년 동안의 대학 교육을 받고 교사 자격증을 얻음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 수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사의 자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우 대학 4년을 다니는 과정에 ‘국악교육’에 관해 받는 수업은 매우 부족한 형편에 있다.³⁾ 그러므로 교사들의 국악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인 국악연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악연수에 관한 연구 중 국악연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김윤영(2002)과 김진아(2009)에 의해 이루어졌고 설문을 통한 연구는 송지혜(2002), 최지유(2004), 권덕원(2005), 김충기(2006), 권은정(2007), 정은경(2011)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수 프로그램의 단순한 분석만으로는 국악 연수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실태조사는 주로 초등교원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국악연수의 만족도를 넘어 국악연수가 교사들이 수업하는데 어떤 점이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활용성에 관한 실태연구는 미흡한 형편이다.

2) 정은경, “‘2007 개정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국악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제 22권 제 1호, 2011), p.82

3) 권덕원, “교사들을 위한 국악연수 프로그램 개선방안” 한국국악교육학회. 2005, p.41

이에 본 연구는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국악연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초·중등교원의 국악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현 국악연수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수행한다.

첫째, 현재 국악연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아본다.

둘째,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중등 음악교원을 대상으로 국악 연수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연수 만족도, 연수 활용성, 개선점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

셋째, 현재 국악연수 운영 실태와 설문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원의 국악연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국악연수의 방향을 제시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 교원 60명, 중등 음악교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국악연수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다.

서울시 소재의 국악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중인 연수원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분석한 김윤영⁴⁾은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연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교원연수를 입문-심화-전문과정의 3단계 학습모형을 교원연수 모형으로 채택하고 점차 교원 전 일생을 통한 평생교육 수준의 연수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원연수는 단순한 기능연마를 위한 것이 아닌 교원들 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학습모형 개발의 장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재정보조 없이는 영세한 유료 연수원들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국립국악원으로서의 연수 편중현상은 고쳐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설문을 통해 충남지역 중등교사의 국악연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그들의 성향과 의식구조를 탐색해보고 문제점을 진단한 송지혜⁵⁾는 효율적인 연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효율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하고, 현장학습과 관련된 실기교육 내용을 많이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악전담연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국악분야강화에 따라 음악교사의 국악연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4) 김윤영, “초·중등교원 연수의 국악프로그램에 관한연구 -서울시 소재 연수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 송지혜, “국악 연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중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교과서를 분석한 최지유⁶⁾는 연구 결과, 음악 교사는 제 7차 교육과정 이후로 더욱 국악이 강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악 수업보다는 본인의 전공에 의존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교사가 국악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국악수업을 위해서는 교사가 국악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국악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악연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악연수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권덕원⁷⁾은 교사들에게 국악연수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연수 내용이 현장 국악교육에 직결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실기 중심의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악연수 프로그램이 기본-고급-심화 단계로 나누어 각자의 수준에 적절한 단계의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악연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국악연수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김충기⁸⁾는 초등학교 교사 국악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수기관을 다양화하고 국악연수 프로그램간의 연계성을 높이며 충분한 연수시간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연수내용을 확대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악 연수가 초등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내 초등 교사 중 국악 연수의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권은정⁹⁾은 국악 연수

6) 최지유, “제 7차 교육과정의 국악 분야 강화에 따른 음악 교사 국악 연수의 현황 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7) 권덕원(2005), 상계서.

8) 김충기,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사 국악연수 실태조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는 초등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지도 능력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 현행 국악 연수의 문제점이 다방면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등음악 교육현장에서 국악연수의 활용성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현행 초등학교 3~6학년 음악 교과서 내의 국악 내용과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악직무연수의 교재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상관성을 살펴본 김선정¹⁰⁾은 연구 결과, 국악직무연수에서 다루어지는 이해영역은 국악의 전 분야를 통틀어 폭넓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 음악교과서의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고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악직무연수의 가창영역 내용은 경기와 남도민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도 민요의 경우 그 내용이 초등 음악교과서 내용과 달라 수업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기악영역의 내용은 초등 음악교과서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었으나 그 내용이 단기간 이루어지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았다. 감상영역과 창작영역 내용은 초등음악교과서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이 대부분 어렵다고 하였다.

국악연수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국악연수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적인 국악연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의 국악연수의 교육과정 및 교재를 분석한 김진아¹¹⁾는 교사가 온전한 국악 지도 능력을 갖추려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반복연수가 필요하며, 교사들의 참여부족으로 국악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적극적

9) 권은정, “국악연수가 초등 교사의 국악지도 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0) 김선정, “초등음악 교육현장에서 국악연수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11) 김진아, “초·중등교원 국악연수 프로그램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으로 홍보를 하여 교사들의 참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 창작영역의 부분이 연수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교사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중심의 국악 강습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2007 개정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국악연수가 무엇인지 그들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사 국악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정은경¹²⁾은 모든 응답자가 ‘2007 개정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단소 지도, 장단 지도, 한국 춤 영역의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바람직한 국악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국악이론을 포함한 국악교육론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연수기관의 프로그램과 교재, 교육과정의 분석으로 이루어져있다. 중등 교원의 국악연수에 관한 실태연구는 초등교원에 대한 연구에 비해 미흡한 형편이며 단순히 연수기관의 프로그램과 교재, 교육과정의 분석만으로는 국악연수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원을 함께 대상으로 하여 국악연수의 수강여부, 국악연수에 대한 만족도와 부족한 부분, 실제 수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활용성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정은경, “2007 개정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국악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제 22권 제1호). 2011.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의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 실행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교원연수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본 다음, 국악연수에 관하여 고찰 해보고자 한다.

1. 교원연수의 이론적 기초

교원 연수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교원연수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원연수의 정의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 교육, 연구, 수양을 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원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에 관한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교원연수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좁은 의미의 정의’와 ‘넓은 의미의 정의’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좁은 의미의 정의’는 대체로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이나, 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제공되는 공식적인 교육·훈련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정의’는 생활 전 기간 중에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교육·훈련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

13) 이윤식 외 14명 공저, 「교직과 교사」(서울:(주)학지사, 2007) pp.193-19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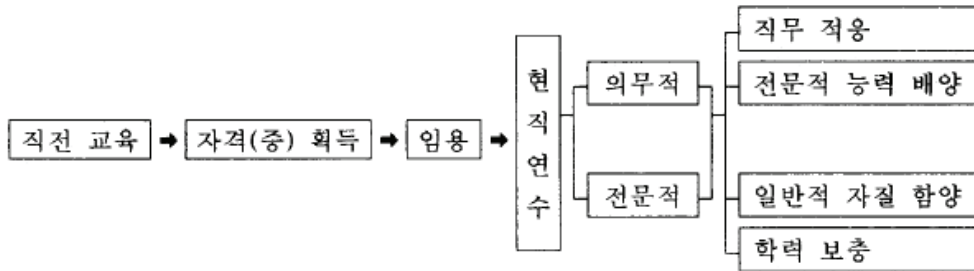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원 현직연수’, ‘교원 현직교육’, ‘교원 연수’등의 용어들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 현직교육·훈련(in-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of teachers), 교직원 개발(staff development), 전문적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교원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등의 유사어 들이 명확한 구별 없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¹⁴⁾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교원이 가르치는 과정 중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교육학대사전에서는 “현직교육이란 현직에 있는 교사가 그들의 직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하여 받는 형식적인 또는 비형식적인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

직전교육이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원연수는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가진 현직교사들의 자질과 능력을 발전·심화시키기 위한 교사 재교육의 과정을 말한다. 즉, 교원연수는 교원이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전문적인 성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계속교육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교원연수의 개념을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은 교원연수의 개념 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

14) 고벽진, “교원 현직연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인식 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15) 교육학편찬위원회(1989), 「교육학대사전」 pp.808-809



<그림 II-1> 교원 연수의 개념 모형¹⁶⁾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원연수는 자격의 획득과 임용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발생하며, 이것은 교원으로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과 내적인 동기유발로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논의들을 기초하여 교원연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교원연수란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임용된 교원이 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비형식적 제반활동이다.

16) 고벽진(2004), 상계서. p15. 재인용.

나. 교원연수의 필요성

공무원의 경우에 능률향상을 위한 훈련 의무가 있다면 교원의 경우엔 교육 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와 수양의 의무가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제 14조 2항)¹⁷⁾하였고, 교육공무원법 제 38조 제 1항에는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¹⁸⁾하고 있어서 직무수행을 위한 교원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대 후반 이후 현직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초임 교사에 대하여 1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지도력 부족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하여 연수를 실시하며, 경력교사에 대하여 10년 경력 후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¹⁹⁾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2년에 선포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에서 뿐 만 아니라, 2005년 선포된 「교직윤리헌장」에서도 ‘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다짐’에서도 ‘나는 수업이 교사의

17) 고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서울:도서출판 하우 2002) p.283

18) 신현석, 「한국의 교원정책」 (서울:(주)학지사, 2010) p.239

19) 이윤식, “교원연수체제의 개편과 교사의 자세” (교학상장, 41. 인천교육청. 2005) pp.60~69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²⁰⁾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현직연수가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책무인 것을 시사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한 문장에 교원연수의 필요성이 함축되어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교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 발전에 힘써야 한다.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성을 지닌 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현직연수인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교육의 주체인 학교교육 또한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이 변하고,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교수방법과 학습방법들이 제시되고 학습 환경 또한 각종 학습 자료와 도구가 개발되었다. 교과서 한 권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아무리 자격을 구비한 교원을 임용하였다 하여도 기하급수적인 지식의 팽창과 변화에 대응할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기정, 김종두, 장경숙(2004)은 교원연수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주장하고 있다.

첫째, 교사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교직 수행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교원 연수를 통해 꾸준한 자기 개발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은 전통적인 교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직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20) 이윤식 외 14명 공저(2007), 상계서. pp.195~196

교원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의 역할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사회의 문화, 그리고 학생들의 사고가 변화하고 있는데 교사만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21)

위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교원연수의 필요성을 종합해보면, 교원연수는 직전교육의 문제점 보완과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적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악연수에 관한 고찰

국악연수에 관한 고찰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국악교육의 중요성의 인지를 위해 국악교육의 당위성과 목적을 알아보았다. 둘째, 국악연수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 국악교육의 당위성과 목적

1) 국악교육의 당위성

학교에서 올바른 국악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국악교육이 왜 필요한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교사는 확신을 갖고 국악교육을 하게 되며, 국악교육을 지원하는 모든 제도

21) 김기정, 김종두, 장경숙, “유치원·초등·중등 교사 연수프로그램의 실태분석” 교육발전. 2004. pp.19~51

가 원활하게 작동된다. 국악교육의 당위성이 강조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형편이다.²²⁾

국악교육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사실 간단한 문제이다. 바로 국악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왜 국악을 배워야 하느냐고 물으면 “우리의 것이어서요.”라고 대답한다. 국악을 지루해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조차도 국악교육의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국악은 민족 문화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남긴 음악적 유산이다. 하나의 뚜렷한 문화적 흔적인 것이다. 우리가 국악을 지키지 않고 없어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마치 불타는 승려문을 뺏히 쳐다만 보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악은 한국인 정서 개발의 필수 자료이다. 어느 나라나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교과 목표도 제시 되어 있다. 나라와 교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교육 목표는 건강한 국민을 길러 내는데 두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건강한 미국인 길러 내기, 일본은 건강한 일본인 길러 내기가 그들의 교육 목표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한국인 길러 내기’가 교육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한국인이 세계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고 공헌하기 위해서 ‘당당하다’는 낱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볼 때, 우리의 교육 목표는 ‘건강하고 당당한 한국인 길러 내기’가 교육의 요체이고 궁극적 지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이 ‘건강하고 당당한 한국인’을 길러 내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민족 고유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우리의 민족정신을 청소년 음악 교육이 심도록 힘써야 한다.

22) 권덕원·황병훈·송정희·박주만, 「국악교육론」(과주: 교육과학사, 2009), p.3

23) 이성천, “우리는 왜 국악을 가르쳐야 하는가” (국악월보, 94.7.), p.33

음악적 모국어는 민족의 생활에 있어서 언어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졸탄 코다이(Zoltan Kodaly)의 초기 음악 교육도 모국어인 헝가리 음계로 작곡된 노래를 지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악을 초기 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²⁴⁾ 우리의 문화유산인 국악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린이들은 주체성과 자주성이 상실된 인간으로 성장될 것이다.²⁵⁾

국악은 우리의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페라를 배우는 일에 있어서 이태리어, 독일어, 영어 등으로 오페라 가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왈츠나 탱고, 삼바 같은 다른 나라의 음악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 음악과 춤을 삶 속에서 즐기는 그들보다 우리가 뒤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사물놀이나 판소리를 흥내는 널 수 있어도 우리만큼 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음악 속에 숨어있는 장단과 가락을 몇 백 년, 몇 천 년을 들으며 살아온 민족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한민족의 핏줄이 흐르고 한국인 특유의 신명과 음악적 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음악을 잘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국악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국악이 익숙하지 않고 국악을 많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악을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름다운 음악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어떤 음악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면, 그 역사적 생존에는 그럴만한 미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 음악이 아름답지 않고, 사람에게 매력을 주지 못했다면 그 음악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다. 오늘날 우리들이 듣는 대부분의 국악은 오랜 세월동안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 것들임에 틀림없다. 국악이 아름답지 않다면 외국에 나간 우리 국악연주단이

24) 원희, 「코다이와 유아 음악 교육」, (서울: 창지사, 1994), p.54

25) 박경화, “국악 교육을 위하여”, 국악 교육 제10집, (한국 국악 교육학회, 1992), p.74~78

기립박수를 받고 종묘제례악이나 판소리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음악은 서양 음악과는 다른, 장단에서 나오는 독특한 리듬과 5음 음계와 단 선율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곡선의 선율, 팔음(八音)의 재료²⁶⁾로 만든 각 악기의 독특한 음색, 시김새²⁷⁾로 꾸며진 유려한 가락, 그리고 흔들고 꺾고 흘러내리고 끌어올리는 등의 음악적 표현 등 우리만의 독자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음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독특한 음색으로 만들어지는 고유한 음악의 세계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오직 이 땅에만 있는 특별한 음악의 세계를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국악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악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어 우리의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길러줄 수 있다. 또한 국악은 남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음악이다. 국악은 한국의 청각적 이미지이며, 한국인의 소리 개념이다. 국악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더 완전하게 보여 질 수 있다.

이러한 국악교육의 당위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또한 개편되고 있는데, 2009년부터 학교교육에 적용되었던 ‘2007 개정 교육과정(문서번호 제 2007-79호)’은 ‘국악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국악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국악교육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와 함께 학습의 수준을 위계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국악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주었다.²⁸⁾

26)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으로 된 우리나라 악기의 재료
 27) 전통음악에서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이나 음길이가 짧은 잔가락, 올라가는 음, 내려가는 음, 꺾어지는 음을 일컫는 용어.
 28) 정은경(2011), 상계서. p.82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문서번호 제2009-41호)’ 또한 마찬가지로 국악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²⁹⁾

2) 국악교육의 목적

국악교육은 음악을 통한 자아실현의 바탕을 마련하여 새 사회의 대를 이룰 수 있는 한국적인 인간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에게도 훌륭한 음악 유산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려 주어 그들이 세계 어느 곳으로 나가더라도 당당하게 다른 민족을 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만큼 남의 나라의 문화 또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세계시민의식을 키워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악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 주는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창의성은 현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모든 분야의 교육에서 창의성은 근본적인 내용이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도 창의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악교육에서도 창의성 교육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국악교육은 ‘전통 교육’이라는 측면이 매우 강했다. 그로 인하여 학생들은 국악을 배울 때, 단지 교사들을 따라 하면서 국악을 익히는 것이 국악교육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교사와 연구자들이 국악교육을 하면서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많은 교수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극에 대해 배우고 모둠별로 창극을 만들어 본다든지, 메기고 받는 형식의 민요에서 메기는 부분을 가사를 창작해보고 민요와 함께 신체표현을 해본다든지,

29) 강향자,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10학년 음악 교과서 분석 : 가창영역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74

민요와 랩을 접목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민요를 친근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배워 볼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국악교육은 더 이상 전통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지루하고 따분한 수업이 아닌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성과 함께 창의력을 함께 신장시켜주는 교육이 된 것이다.

국악교육의 목적으로 또 책무성을 들 수 있는데, 책무성이란 직무에 따른 책임감이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써 국악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책무성을 길러 주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책무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이제까지 국악교육은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맹목적으로 실시되어 온 부분이 없지 않다. 물론 우리의 것이니까 지켜야 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나, 이제는 국악교육도 전통교육을 넘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시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 국악연수 운영 실태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악교육은 당위성이 분명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올바른 국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국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 초등 및 중등 음악 교사들의 경우 대학 4년을 다니는 과정에 ‘국악교육’에 관해 받는 수업은 매우 부족한 형편에 있으므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연수는 매우 중요하며, 그 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앞서 국악연수의 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교육청에서 지정한 국악 관련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

하나, 시간적 제약과 지리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정 한 특수 분야 연수기관 중 국악 관련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기관들이 가장 최근인 2011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청·본청·직속기관’, ‘초등학교’, ‘서울교육연수원(외부기관)’, ‘교육연구정보교육원’의 네 가지 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³⁰⁾

1) 지역청·본청·직속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한 2011년도 특수 분야 직무연수기관 중 ‘지역청·본청·직속기관’의 국악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지역청·본청·직속기관 특수 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 국악 관련 프로그램 현황

| 지정 번호 | 연수 기관 | 연수과정명 | 연수 과정 구분 | 연수기간 | | 이 수 시 간 | 계획인원 | | | |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유 치 원 | 초 등 학 교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 서울교육 2011-035 | 유아교육 진흥원 | 유아와 교사가 즐거운 우리장단 우리놀이 한마당 | 전문 | 2011.08.22 | 2011.08.26 | 15 | 30 | | | |

‘지역청·본청·직속기관’ 실시 특수 분야 직무연수 과정은 총 86개 과목이었고 그 중 국악 관련연수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와 교사가 즐거운 우리장단 우리놀이 한마당’으로 한 과목 뿐 이었다. 서울시 본청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 연수 총 86개 과목 중

30) 이후에 제시된 표는 각 기관의 특수 분야 직무연수 중 국악 관련 연수만을 편집하였다.

에 국악 관련 연수가 단 한 과목, 그것도 유치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 외부 기관이 아닌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서울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인 만큼 연수 프로그램에 다양하고 실속 있는 국악 관련 연수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선정한 2011년도 특수 분야 직무연수기관 중 ‘초등학교’의 국악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초등학교 특수 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 국악 관련 프로그램 현황

| 지정 번호 | 연수 기관 | 연수과정명 | 연수 과정 구분 | 연수기간 | | 이 수 시 간 | 계획인원 | | | |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유 치 원 | 초 등 학 교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 서울교육 2011-053 | 서울연 은초등 학교 | 교사 단소 장구 직무연수 | 개발 | 2011.07.19 | 2011.07.23 | 30 | | 40 | |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특수 분야 직무연수 과정은 총 16개 과목이었으며 그 중 국악 관련 연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단소 장구 직무연수’ 한 과목 뿐 이었다. ‘서울 연은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사 단소 장구 직무연수’는 30시간동안 진행되는 연수로 40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계획인원으로 두고 있었다. 악기를 가르치는 실기 과목인 만큼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데 40명이라는 많은 인원에게 장구와 단소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우려되는 부분이

나, 장구와 단소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국악기이기 때문에 반을 분반하여 효율적으로만 수업이 진행된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몇 개 안되는 프로그램 중에 국악 관련 프로그램이 한 프로그램이라도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나 기악 이외에 가창과 이론에 관한 프로그램도 같이 편성되어 진다면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악에 대한 재교육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3) 서울교육연수원(외부기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선정한 2011년도 특수 분야 직무연수기관 중 ‘서울교육연수원(외부기관)’의 국악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살펴보면<표 II-3>과 같다.

<표 II-3> 서울교육연수원(외부기관) 특수 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 국악 관련 프로그램 현황

| 지정 번호 | 연수 기관 | 연수과정명 | 연수 과정 구분 | 연수기간 | | 이 수 시 간 | 계획인원 | | | |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유 치 원 | 초 등 학 교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 서울교육 2011-433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 흥겨운 우리음악 배우기 | 개발 | 2011.08.08 | 2011.08.12 | 30 | | | | 20 |
| 서울교육 2011-500 | 우리가락 교육연구회 | 교실 속! 흥겨운 우리가락 - 1기 | 전문 | 2011.07.25 | 2011.07.29 | 30 | 3 | 16 | 3 | 3 |
| | | 교실 속! 흥겨운 우리가락 - 2기 | 전문 | 2012.01.02 | 2012.01.06 | 30 | 3 | 16 | 3 | 3 |
| 서울교육 2011-502 | 국립국악원 | 유초중등교원 국악교육 직무연수초급과정 | 전문 | 2011.05.11 | 2011.06.01 | 30 | 5 | 25 | 5 | 5 |
| | | 유초중등교원 국악교육 직무연수초급과정 1기 | 전문 | 2011.07.25 | 2011.08.05 | 80 | 5 | 60 | 10 | 5 |

| | | | | | | | | | | |
|------------------|----------------------|----------------------------------|----|------------|------------|----|---|----|----|----|
| | | 유초중등교원 국악교육 직무연수초급과정 2기 | 전문 | 2012.01.02 | 2012.01.13 | 80 | 5 | 60 | 10 | 5 |
| 서울교육 2011-535 | 이화여자 대학교 음악연구소 | 하계 소금강습 | 개발 | 2011.07.25 | 2011.08.05 | 30 | 2 | 7 | 6 | |
| | | 하계 장구 및 시조 | 개발 | 2011.07.25 | 2011.07.29 | 30 | 3 | 6 | 5 | 1 |
| | | 하계 판소리 실기와 이론 | 개발 | 2011.08.01 | 2011.08.05 | 30 | 2 | 7 | 6 | |
| | | 동계 소금강습 | 개발 | 2012.01.09 | 2012.01.20 | 30 | 2 | 7 | 6 | |
| | | 동계 장구 및 시조 | 개발 | 2012.01.09 | 2012.01.13 | 30 | 2 | 7 | 6 | |
| | | 동계 판소리 실기와 이론 | 개발 | 2012.01.16 | 2012.01.20 | 30 | 2 | 7 | 6 | |
| 서울교육 2011-536 | 풍물교육 연구소 | 전통문화(풍물) 교원직무연수 1기 | 개발 | 2011.08.08 | 2011.08.12 | 30 | 5 | 95 | 40 | 35 |
| | | 전통문화(풍물) 교원직무연수 2기 | 개발 | 2012.01.03 | 2012.01.07 | 30 | 5 | 95 | 40 | 35 |

‘서울교육연수원(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특수 분야 직무연수 과정은 총 150개 과목이었으며 그 중 국악 관련 연수는 총 5곳에서 14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연수기관의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에서 실시하는 ‘흥겨운 우리음악 배우기’는 고등학교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30시간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적당한 수강 인원수와 대상을 고등학교 교사로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가락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교실 속! 흥겨운 우리가락’은 연수가 1기와 2기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수시간은 각각 30시간씩 배정되어 있었다. 연수 계획인원은 유치원 교사 3명, 초등학교 교사 16명, 중학교 교사 3명, 고등학교 교사 3명으로 총 25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총 계획인원으로만 본다면 적당한 정원이나, 초등학교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아 초등학교 교사 위주의 연수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이 연수의 참여한 중등교사들은 효율적인 연수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립국악원’의 국악 관련 연수 과정은 ‘유초중등교원국악교육 직무연수’를 각각 초급과정, 초급과정 1기, 초급과정 2기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는데 초급과정의 30시간을 제외한 1기, 2기의 두 과목은 60시간씩 배정되어 있었다. 국립국악원은 타 연수 기관에 비해 연수 시간과 계획된 인원이 많았지만 초급과정의 경우 계획인원이 유치원 교사 5명, 초등학교 교사 25명, 중학교 교사 5명, 고등학교 교사 5명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계획인원이 유치원이나 중등교사의 계획인원의 5배였다. 초급과정 1,2기 같은 경우 또한 계획인원이 유치원 교사 5명, 초등학교 교사 60명, 중학교 교사 10명, 고등학교 교사 5명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계획인원이 중학교 교사의 6배, 유치원·고등학교 교사의 12배나 되었다. 연수 과목이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초급과정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심하게 인원이 편중된 점이 아쉽다.

넷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의 경우 ‘소금강습’과 ‘장구 및 시조’, ‘판소리 실기와 이론’을 30시간씩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었다. 하계와 동계 모두 ‘소금강습’은 유치원 교사 2명, 초등학교 교사 7명, 중학교 교사 6명을 계획인원으로 두고 있었고 ‘장구 및 시조’는 유치원교사 3명, 초등학교 교사 6명, 중학교 교사 5명, 고등학교 교사 1명, 그리고 ‘판소리 실기와 이론’은 유치원교사 2명, 초등학교 교사 7명, 중학교 교사 6명을 계

확인원으로 두고 있었다. 모든 강좌가 총 강습 인원을 15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효율적인 강습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 연수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초등학교 교사에게만 계획인원이 편중되어 있지 않은 점이 좋은 점이지만, ‘장구 및 시조’ 강좌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원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소금강습’은 10일 동안 강습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어 하루에 3시간씩 수업을 받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악기를 익힐 수 있도록 연수 기간이 구성되어 있지만, ‘장구 및 시조’와 ‘판소리 실기와 이론’은 5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특히 시조나 판소리는 목을 써야 하는데, 아무리 장구나 이론 수업을 병행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하는 것은 강사 입장에서나 학생 입장에서나 무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연수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풍물교육연구소’에서는 ‘전통문화(풍물) 교원 직무연수’를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는데 유치원 교사 5명, 초등학교 교사 95명, 중학교 교사 40명, 고등학교 교사 35명으로 무려 175명을 계획인원으로 두고 있었다. 풍물놀이가 타 악기에 비해 비교적 배우기 쉽고 인원수에 유연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0시간 안에 175명이나 되는 교원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풍물교육연구소’의 연수는 계획인원의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울교육연수원(외부기관)’의 각 연수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주로 실기 중심의 연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수시간은 ‘국립국악원’의 ‘유초중등교원국악교육 직무연수’ 1,2기를 제외하고는 30시간씩 배정 되어 있었다. 계획인원의 구성은 각 연수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초등학교 교사에 편중되어 있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만족스러운 연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중·고등학교의 음악 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사의 수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인원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인원을 조절하고, 국악 관련 연수과목의 분반을 늘린다면 연수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악 재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4) 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선정한 2011년도 특수 분야 직무연수 기관 중 ‘교육연구정보원’의 국악 관련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교육연구정보원 특수 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 국악 관련 프로그램 현황

| 지정 번호 | 연수 기관 | 연수과정명 | 연수 과정 구분 | 연수기간 | | 이 수 시 간 | 계획인원 | | | |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유 치 원 | 초 등 학 교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 서울교육 2011-806 | 서울초등 체육교과 교육연구회 | 풍물놀이 1기 | 전문 | 2011.07.20 | 2011.07.22 | 15 | 2 | 34 | 2 | 2 |
| | | 풍물놀이 2기 | 전문 | 2012.01.04 | 2012.01.06 | 15 | 2 | 34 | 2 | 2 |
| 서울교육 2011-807 | 서울초등 음악교과 연구회 | 초등학생을 위한 소금 지도법 | 전문 | 2011.07.25 | 2011.07.29 | 30 | | 17 | 2 | 1 |
| | | 소금을 활용한 다양한 연주법 | 전문 | 2012.01.02 | 2012.01.06 | 30 | | 17 | 2 | 1 |
| 서울교육 2011-833 | 서울 초등풍물 교육연구회 | 음악 교육과정 감상영역의 사물놀이 지도법 1기 | 전문 | 2011.07.25 | 2011.07.27 | 15 | 30 | | | |
| | | 음악 교육과정 감상영역의 | 전문 | 2011.07.27 | 2011.07.29 | 15 | 30 | | | |

| | | | | | | | | | |
|------------------|------------------------|----------------------------------------------|----|------------|------------|----|--|---|----|
| | | 사물놀이 지도법 2기 | | | | | | | |
| | | 학예발표회 준비를 위한 모듬북놀이 지도법 | 전문 | 2011.08.08 | 2011.08.13 | 30 | | | 80 |
| | | 체육 교육과정 표현 활동 지도를 위한 선반 판굿 연구 1기 | 전문 | 2011.07.20 | 2011.07.25 | 45 | | | 20 |
| | | 체육 교육과정 표현 활동 지도를 위한 선반 판굿 연구 2기 | 전문 | 2011.08.15 | 2011.08.20 | 45 | | | 20 |
| | | 음악 교과서 내의 굿거리, 자진모리, 휘몰이 장단 연구 1기 | 전문 | 2012.01.04 | 2012.01.06 | 15 | | | 30 |
| | | 음악 교과서 내의 굿거리, 자진모리, 휘몰이 장단 연구 2기 | 전문 | 2012.01.09 | 2012.01.11 | 15 | | | 30 |
| | |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지도를 위한 북놀이 지도법 | 전문 | 2012.01.02 | 2012.01.07 | 30 | | | 80 |
| | | 효과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판굿 지도법 1기 | 전문 | 2012.01.02 | 2012.01.07 | 45 | | | 20 |
| | | 효과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판굿 지도법 2기 | 전문 | 2012.01.09 | 2012.01.14 | 45 | | | 20 |
| 서울교육 2011-905 | 서울초중등 사물놀이 교육연구회 | 모듬북 초급 (기본박 중심) | 개발 | 2011.08.08 | 2011.08.12 | 30 | | 5 | 3 |
| | | 모듬북 (발표용 작품) | 개발 | 2011.08.08 | 2011.08.12 | 30 | | 5 | 3 |

| | | | | | | | | | |
|------------------|------------------------|---------------------------|----|------------|------------|----|--|----|---|
| | | 웃다리 사물놀이 (장구 중심) | 개발 | 2011.08.08 | 2011.08.12 | 30 | | 5 | 3 |
| | | 선반 설장구 (빠른 자진모리) | 개발 | 2011.08.08 | 2011.08.12 | 30 | | 4 | 3 |
| | | 초급동아리 지도를 위한 모듬북 | 개발 | 2012.01.09 | 2012.01.13 | 30 | | 4 | 3 |
| | | 모듬북 작품 지도 | 개발 | 2012.01.09 | 2012.01.13 | 30 | | 3 | 4 |
| | | 웃다리 사물놀이 (쟁과리 중심) | 개발 | 2012.01.09 | 2012.01.13 | 30 | | 5 | 3 |
| | | 선반 설장구 (느린 자진모리) | 개발 | 2012.01.09 | 2012.01.13 | 30 | | 4 | 3 |
| 서울교육 2011-925 | 서울초중등 전통타악 교육연구회 | 우리가락 전승을 위한 영남가락 장구 | 개발 | 2011.07.19 | 2011.07.23 | 30 | | 15 | |
| | | 전통 타악 전승을 위한 영남 쟁과리 | 개발 | 2011.07.19 | 2012.07.23 | 30 | | 15 | |
| | | 삼도 가락 중심의 모듬북 | 개발 | 2011.07.19 | 2011.07.23 | 30 | | 15 | 5 |
| | | 경기충청 웃다리 장구 모듬 | 개발 | 2012.01.02 | 2012.01.06 | 30 | | 15 | 5 |
| | | 굿거리 장단 중심의 설장구 | 개발 | 2012.01.02 | 2012.01.06 | 30 | | 15 | |
| | | 갓은 가락 이해를 위한 쟁과리 짝쇠 | 개발 | 2012.01.02 | 2012.01.06 | 30 | | 15 | |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하는 특수 분야 직무연수 과정은 총 379개 과목이었고, 그 중 국악 관련 연수는 5개 기관에서 28과목이 개설되어 실시되었다. 각 연수기관의 과목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초등체육교과교육연구회’는 ‘풍물놀이’를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연수를 시행하였고 계획인원은 초등학교 교사 34명, 유치원·중학교·고등

학교 교사는 각 2명으로 총 40명을 계획인원으로 두고 있었다. 이수시간은 15시간으로 총 3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연수 기간이 너무 짧은 점이 아쉽다.

둘째, ‘서울초등음악교과연구회’의 연수 과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위한 소금 지도법’과 ‘소금을 활용한 다양한 연주법’을 각각 하계와 동계 기간에 실시하였으며 이수시간은 각 30시간, 5일에 걸쳐서 20명을 계획인원으로 실시하였는데, 20명이라는 인원이 같이 악기를 배울 경우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인데다 5일에 걸쳐서 하루에 6시간씩 악기를 배운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악기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장기간 꾸준히 일정 시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³¹⁾ 또한 소금은, 처음 배우는 사람은 소리 내는 법을 배우는데도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아주 익숙하게 잘 부는 사람 아니면 조금만 불어도 매우 숨이 차는 악기인데 하루에 6시간씩 배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연수 기간을 좀 더 늘려 하루에 배우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소금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서울초등풍물교육연구회’에서는 과목이 10과목이나 개설되어 있었는데, 각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먼저 ‘음악 교육과정 감상 영역의 사물놀이 지도법’과 ‘음악 교과서 내의 굿거리, 자진모리, 휘몰이 장단 연구’를 1기와 2기로 나누어 30명을 계획인원으로 두고 3일 동안 15시간씩 이수하도록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의 경우 연수 시간은 길지 않으나, 프로그램을 교과서 내의 감상영역의 사물놀이 지도법과 세 개의 대표적인 장단을 연구하는데 한정시켰으므로 연수 기간과 계획인원이 적당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음악시간에 실질적으로 다루는 부분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들이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학예발표회 준비를 위한 모듬북놀이 지도법’과

31) 민경훈 외 12명 공저. 「음악교육학 총론」(서울: (주)학지사 2010). p103.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 지도를 위한 북놀이³²⁾ 지도법’을 30시간동안 80명을 계획인원으로 두고 6일 동안 진행하였는데 두 과목 모두 비교적 쉽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80명이라는 인원은 좀 많다. 이외에도 ‘체육 교육과정 표현 활동 지도를 위한 선반 판긋 연구’와 ‘효과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판긋³³⁾지도법’을 각각 1기와 2기로 나누어 20명을 대상으로 45시간을 6일 동안 진행하였는데 지금까지 살펴 본 국악 관련연수 과목 중 가장 여유롭고 세밀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넷째, ‘서울초중등사물놀이교육연구회’의 프로그램들은 사물놀이와 모듬북을 중심으로 총 8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이 과목들을 살펴보면 ‘모듬북 초급(기본박 중심)’, ‘웃다리 사물놀이(장구중심)’, ‘선반 설장구(빠른 자진모리)’, ‘선반 설장구(느린 자진모리)’, ‘초급 동아리 지도를 위한 모듬북’ 등으로 대부분 포괄적인 강의가 아닌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이수시간은 모두 30시간씩 6일 동안 진행되었고 계획인원은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7~8명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배우는 과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익힐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초중등전통타악교육연구회’에서는 ‘우리가락 전승을 위한 영남가락 장구’, ‘전통타악 전승을 위한 영남 뽕과리’, ‘삼도가락 중심의 모듬북’, ‘경기충청 웃다리 장구 모듬’, ‘굿거리 장단 중심의 설장구’, ‘잡은가락 이해를 위한 뽕과리 짝쇠’ 로 총 6개 과목을 개설하였다. 영남가락, 삼

32) 북을 메고 나와 벌이는 놀이.

33) 판긋은 본래 대보름, 정월 초하루 같은 절기에 풍물패가 집집마다 지신밟기를 하며 마을의 신명을 엮어낸 다음, 마지막 날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판의 신명나는 곳을 이루어 내는 것을 말하고 음악적인 측면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놀이성을 강조하였다. : 송세영, “호흡과 움직임에 의한 사물놀이 삼도풍물 분석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23

도가락 등 특정 가락을 지정하거나 팽과리나 장구, 모듬북 중 특정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과목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가락과 특정 악기에 대해 자세하게 익힐 수 있어 좋은 프로그램들이다. 이수시간은 모두 30시간씩 5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계획인원은 ‘삼도가락 중심의 모듬북’과 ‘경기충청 웃다리 장구 모듬’은 각각 20명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연수과목들은 각각 15명으로 구성하였다. ‘서울초중등전통타악교육연구회’에서 개설한 과목들은 적절한 계획인원으로 특정 가락과 특정 악기를 자세히 익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교육연구정보원’의 국악 관련연수 과목들을 분석한 결과 ‘서울초등풍물교육연구회’의 ‘음악교육과정 감상 영역의 사물놀이 지도법’과 ‘음악 교과서 내의 굿거리, 자진모리, 휘몰이 장단 연구’처럼 교사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들이 많았는데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지도를 위한 북놀이 지도법’이나 ‘초급동아리 지도를 위한 모듬북’같이 음악 시간 외에도 국악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 된다.

그러나 총 28과목 중에 ‘서울초등음악교과교육연구회’의 두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이 모두 풍물놀이나 모듬북 같이 타악기를 배우는 과목들이었다. 물론 그 과목들이 적절한 계획인원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좋은 연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고, 학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모듬북이나 풍물놀이 등의 타악기가 가장 좋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 28과목 중에 단 두 과목만이 다른 악기를 배우는 과목이고 가창이나 이론에 관한 과목이 한 과목도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개설된 과목에 더하여 가창이나 이론, 다른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교사들이 더 다양하게 국악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중등 교원의 국악연수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조사대상, 조사 도구, 자료 처리, 조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국악 연수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원 60명, 중등 음악교원 60명 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국악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 교사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사, 현장에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교직경력별, 중등 음악교사의 경우 전공별에 따른 연구대상자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자 분포

| 구 분 | | 집 단 | 빈 도 | 퍼 센 트(%) | 합 계 |
|-----|-----------|--------|-------|----------|-----|
| 초 등 | 성 별 | 남 | 4 | 6.7% | 60 |
| | | 여 | 56 | 93.3% | |
| | 교 직 경 력 별 | 5년 이하 | 13 | 21.7% | 60 |
| | | 6~10년 | 13 | 21.7% | |
| | | 11~20년 | 21 | 35.0% | |
| | | 21년 이상 | 13 | 21.7% | |
| | 근 무 지 별 | 서울 | 40 | 66.7% | 60 |
| 경기 | | 20 | 33.3% | | |
| 중 등 | 성 별 | 남 | 9 | 15.0% | 60 |
| | | 여 | 51 | 85.0% | |
| | 교 직 경 력 별 | 5년 이하 | 16 | 26.7% | 60 |
| | | 6~10년 | 6 | 10.0% | |

| | | | | | | |
|--------|------|--------|----|-------|---------------|----|
| | | 11~20년 | 8 | 13.3% | 60 | |
| | | 21년 이상 | 30 | 50.0% | | |
| | 근무지별 | 서울 | 56 | 93.3% | 60 | |
| | | 경기 | 4 | 6.7% | | |
| 대학 전공별 | 양악 | 피아노 | 14 | 23.3% | 55 (91.7%) | 60 |
| | | 성악 | 15 | 25% | | |
| | | 작곡 | 7 | 11.7% | | |
| | | 관현악 | 3 | 5% | | |
| | | 미응답 | 16 | 26.7% | | |
| | 국악 | 가야금 | 1 | 1.7% | 5(8.3%) | |
| | | 대금 | 1 | 1.7% | | |
| | | 피리 | 1 | 1.7% | | |
| | | 거문고 | 1 | 1.7% | | |
| | | 미응답 | 1 | 1.7% | |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음악교사들의 국악 연수의 실태와 활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국악연수와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 중 권덕원의 연구³⁴⁾와 권은정의 연구,³⁵⁾ 최지유의 연구³⁶⁾를 참고자료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일차 수정한 후, 초등교사 2명과 중등교사 2명의 사전 설문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설문 대상에 대한 기초조사 문항 5개, 교사의 국악지도능력에 관한 문항 7개, 국악연수에 관한 문항 6개,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에 관한 문항 3개, 국악연수를 받은 교사에 관한 문항 8개, 국악연수 후 국악수업을 해본 교사에 관한 문항 3개로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4) 권덕원(2005), 전개서.

35) 권은정(2007), 상계서.

36) 최지유(2004), 상계서.

설문지 문항의 자세한 구성을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설문지 문항 구성

| 영역 | 문항수 | 문항내용 | 문항번호 |
|--------------------------------|-----|----------------------------|------|
| 교사의 국악지도 능력 | 7문항 | 수업내용 중 양악과 국악의 비율 | 1 |
| | | 국악을 지도하는데 느끼는 어려움 | 2 |
| | |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 2-1 |
| | | 국악을 지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 3 |
| | | 장구나 단소 실기 지도 능력 정도 | 4 |
| | | 민요나 전래동요 지도 방식 | 5 |
| | | 연주 가능한 국악기 | 6 |
| 국악연수에 관한 질문 | 5문항 | 교사의 국악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7 |
| | |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국악연수의 기회 | 8 |
| | | 국악 개인 연수 여부 | 9 |
| | | 개인연수를 받는 이유 | 9-1 |
| | | 국악연수 수강 여부와 횟수 | 10 |
|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에 관한 문항 | 3문항 | 국악연수를 받지 못한 이유 | 11 |
| | | 국악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강 여부 | 12 |
| | | 연수를 받는다면 원하는 프로그램 여부 | 13 |
| 국악연수를 받은 교사에 관한 문항 | 8문항 | 국악연수에 참여한 목적 | 14 |
| | | 국악 연수 주최 기관 | 15 |
| | |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과 그 이유 | 15-1 |
| | |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16 |

| | | | |
|-------------------------|-----|------------------------------------|----|
| | |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운 점 | 17 |
| | | 국악연수를 통한 실력 향상 정도 | 18 |
| | | 국악연수 교육 내용과 교과서 내용의 부합 정도 | 19 |
| | | 바람직한 국악 연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20 |
| 국악연수 후 수업에 대한 활용성 | 3문항 | 국악 연수가 수업 지도에 도움이 되는 정도 | 21 |
| | | 연수 내용 중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 받은 내용과 정도 | 22 |
| | | 국악 연수가 학생 국악교육 지도에 도움이 되는 점 | 23 |

3. 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2012년 1월9일부터 2012년 3월 26일까지 서울지역의 3곳의 국악연수 기관과 1곳의 초등학교, 11곳의 중학교와 2곳의 고등학교를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받았기 때문에 회수율은 100%에 해당되며 자료 분석은 Windows 용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조사결과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들의 국악지도능력, 국악 연수와 연수 활용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직경력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법을 실시하였으나 차이가 없어 전체 빈도수와 괄호 안에 퍼센트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들의 국악 지도 능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1) 수업내용 중 양악과 국악의 비율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의 음악시간 수업내용 중 양악과 국악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음악시간 수업내용 중 양악과 국악의 비율

| | 국악만 수업 | 양악보다 국악을 많이 수업 | 반반씩 수업 | 국악보다 양악을 많이 수업 | 양악만 수업 | 계 |
|---------|--------|----------------|----------|----------------|--------|----|
| 초등교원 | 0(0.0) | 3(5.0%) | 28(46.7) | 29(48.3) | 0(0.0) | 60 |
| 중등 음악교원 | 0(0.0) | 1(1.7) | 21(35.0) | 38(63.3) | 0(0.0) | 60 |

초등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악보다 양악을 많이 수업한다는 응답이 각각 48.3%와 63.3%로 가장 많았다. 초등교원의 경우, 양악과 국악을 반씩 수업한다는 응답도 46.7%로 꽤 많았으나 중등교원의 경우에는 양악을 더 많이 수업한다는 응답이 63.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위 결과들을 보았을 때 초·중등 교원 모두 음악시간에 국악보다 양악을 많이 수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초등교원이 중등교원보다 국악을 더 많이 수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악을 지도하는데 느끼는 어려움 정도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국악을 지도하는데 느끼는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을 지도하는데 느끼는 어려움 정도

| | 많은 어려움을 느낌 | 어려움을 느낌 | 보통 |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 전혀 어렵지 않고 자신있음 | 계 |
|---------|------------|----------|----------|-------------|----------------|----|
| 초등교원 | 8(13.3) | 34(56.7) | 9(15.0) | 6(10.0) | 3(5.0) | 60 |
| 중등 음악교원 | 6(10.0) | 26(43.3) | 21(35.0) | 4(6.7) | 3(5.0) | 60 |

초등교원의 경우 70%,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53.3%가 국악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여 초등과 중등 모두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국악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5%로 꽤 높은 편이었고 국악지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거나 자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초등교원이 15%로 중등교원 보다 4.3% 높아 초등교원들이 중등교원들 보다 국악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국악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국악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선생님들 중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그 응답결과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 | 교사의 국악지도 능력 부족 | 현장의 국악교육환경 미확보 | 국악지도 내용이 많음 | 기타 | 계 |
|---------|----------------|----------------|-------------|--------|----|
| 초등교원 | 26(61.9) | 12(28.6) | 3(7.1) | 1(2.4) | 42 |
| 중등 음악교원 | 19(59.4) | 9(28.1) | 3(9.4) | 1(3.1) | 32 |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악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61.9%, 59.4%로 가장 많았다. 또한 현장의 국악 교육 환경이 미확보 되어서 그렇다는 응답도 초등과 중등 모두 28% 가량 되었다. 국악 지도 내용이 많아서 그렇다는 의견도 초등 7.1%, 중등 9.4%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이해와 흥미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3) 국악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국악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을 살펴보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국악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 | 가창영역 | 기악영역 | 창작영역 | 감상영역 | 계 |
|---------|----------|----------|----------|--------|----|
| 초등교원 | 22(36.7) | 23(38.3) | 10(16.7) | 5(8.3) | 60 |
| 중등 음악교원 | 23(38.3) | 16(26.7) | 16(26.7) | 5(8.3) | 60 |

‘국악 중 어느 영역 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초등 교원의 38.3%가 기악영역이라고 대답했고 가창영역 36.7%, 창작영역 16.7%, 감상영역 8.3% 순으로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가창영역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기악과 창작영역이 각 26.7%, 감상영역이 8.3%의 응답을 얻었다.

4) 장구나 단소 실기 지도 능력 정도

초등 교원·중등 음악교원의 장구나 단소 실기 지도 능력 정도를 살펴보면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장구나 단소 실기 지도 능력 정도

| | 곡의 특징에 맞게 지도 가능 | 기본음계, 운지법, 장단 지도 가능 | 전혀 할 수 없음 | 계 |
|---------|-----------------|---------------------|-----------|----|
| 초등교원 | 16(26.7) | 44(73.3) | 0(0.0) | 60 |
| 중등 음악교원 | 28(46.7) | 32(53.3) | 0(0.0) | 60 |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기본음계, 운지법, 장단은 지도가능’이란 응답이 각각 73.3%와 53.3%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 음악교원은 곡의 특징에 맞게 지도 가능하다는 응답도 46.7%로 높은 편이었다. 전혀 할 수 없다는 응답은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없었다. 위 결과로 거의 모든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이 장구나 단소로 실기 지도가 가능하며 중등 음악교원이 단소나 장구의 실기 지도 능력이 더 뛰어남을 알 수 있다.

5) 민요나 전래동요 지도 방식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민요나 전래동요 지도 방식을 살펴보면 <표 III-8>과 같다.

<표 III-8>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민요나 전래동요 지도 방식

| | 교과서의 제재 곡을 직접 장구 반주하며 지도 | 장구반주는 못하지만 시범을 보이며 따라 부르게 함 | 악보대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지도 | 멀티미디어 자료(CD, mp3 등)을 활용하여 따라 부르게 함 | 동료 교사나 국악 교과 전담교사 에게 부탁 | 계 |
|------------|--------------------------------------|--------------------------------------------|----------------------------|---------------------------------------------------|-------------------------------------|----|
| 초등교원 | 17(28.3) | 12(20.0) | 0(0.0) | 31(51.7) | 0(0.0) | 60 |
| 중등 음악교원 | 32(53.3) | 3(5.0) | 5(8.3) | 20(33.3) | 0(0.0) | 60 |

민요나 전래동요를 지도할 때 초등교원은 ‘멀티미디어 자료(CD, mp3 등)를 활용하여 따라 부르게 한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 많은 응답으로는 ‘교과서의 제재 곡을 직접 장구 반주를 하며 지도한다’가 28.3%로 많았다. 나머지 20%는 ‘장구 반주는 못하지만 직접 시범을 보이며 따라 부르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등 음악교원은 ‘교과서의 제재 곡을 직접 장구 반주를 하며 지도한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 많은 응답으로는 ‘멀티미디어 자료(CD, mp3)를 활용하여 따라 부르게 한다’가 33.3%로 많았다. 초등교원과 달리 ‘악보대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지도한다’는 응답도 8.3%있었으며, ‘장구 반주는 못하지만 직접 시범을 보이며 따라 부르게 한다’는 응답은 5%였다.

위의 결과로 많은 초등교원이 민요나 전래동요를 지도할 때 주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많

은 교사들이 주로 제재 곡을 직접 장구 반주를 하며 지도하나, 역시 적지 않은 교사들이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민요나 전래동요를 지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연주 가능한 국악기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몇 가지의 국악기를 주로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면 <표 III-9>와 같다.

<표 III-9>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연주 가능한 국악기 개수

| | 1가지 | 2가지 | 3가지 | 4가지 | 5가지 이상 | 계 |
|------------|----------|----------|----------|---------|---------|----|
| 초등교원 | 12(20.0) | 24(40.0) | 7(11.7) | 9(15.0) | 8(13.3) | 60 |
| 중등 음악교원 | 5(8.3) | 29(48.3) | 19(30.0) | 29(3.3) | 6(10.0) | 60 |

초등교원의 경우 연주 가능한 국악기 개수를 살펴보면 2가지가 40%로 가장 많았고 1가지가 20%, 4가지가 15%, 5가지 이상이 13%, 3가지가 11.7%를 차지하였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는 역시 2가지가 48.3%로 가장 많았고 3가지가 30%, 5가지 이상이 10%, 1가지가 8.3% 4가지가 3.3%를 차지하였다.

위의 결과로 초등·중등 음악교원 모두 2가지의 국악기가 연주 가능한 교사들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초등·중등 음악교원들이 주로 연주할 수 있는 국악기들을 살펴보면 <표 III-10>, <표 III-11>과 같다.

<표 III-10> 초등교원이 연주 가능한 국악기

| 장구 | 단소 | 가야금 | 소금 | 쟁과리 | 북 |
|----------|----------|--------|----------|----------|----------|
| 53(88.3) | 49(81.7) | 4(6.7) | 11(18.3) | 16(26.7) | 14(23.3) |
| 징 | 해금 | 거문고 | 대금 | 태평소 | 모듬북 |
| 7(11.7) | 3(5.0) | 1(1.7) | 1(1.7) | 1(1.7) | 1(1.7) |

<표 III-11> 중등 음악교원이 연주 가능한 국악기

| 장구 | 단소 | 가야금 | 소금 | 쟁과리 | 북 | |
|----------|----------|----------|----------|---------|--------|--------|
| 54(90.0) | 57(95.0) | 14(23.3) | 11(18.3) | 6(10.0) | 3(5.0) | |
| 징 | 해금 | 거문고 | 대금 | 태평소 | 아쟁 | 피리 |
| 2(3.3) | 2(3.3) | 1(1.7) | 1(1.7) | 1(1.7) | 2(3.3) | 1(1.7) |

초등교원이 연주 가능한 국악기를 살펴보면 장구가 88.3%로 가장 많았고 단소가 81.7%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쟁과리 26.7%, 북 23.3%, 소금 18.3%, 징 11.7%, 가야금 6.7%, 해금 5.0%, 거문고, 태평소, 대금, 모듬북은 각 1.7%로의 응답을 얻었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단소가 95%, 장구가 90%, 가야금이 23.3%, 소금이 18%, 쟁과리 10%, 북 5%, 징, 해금, 아쟁은 각 3.3%, 거문고, 대금, 태평소, 피리는 각 1.7%의 응답을 얻었다.

위의 결과로, 대다수의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은 장구와 단소 연주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초등교원보다 더 많은 중등 음악교원이 장구와 단소 연주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등 음악교원이 초등교원보다 가야금을 다룰 수 있는 교원이 더 많고, 초등교원이 중등 음악교원 보다 사물놀이 악기(쟁과리, 북, 징)를 연주할 수 있는 교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국악연수에 관한 질문

초등·중등 음악교원에게 국악연수에 관한 의견과 개인연수, 국악연수 수강여부를 질문하였다.

1) 교사의 국악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초등·중등 음악교원에게 교사의 국악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응답결과는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생각하는 국악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 지속적인 국악연수 실시 | 충분한 학습자료 준비 | 다양한 국악기 비치 | 대학에서의 직전 교육 활성화 | 국악 전공 교사의 방문 교육 | 기타 | 계 |
|---------|--------------|-------------|------------|-----------------|-----------------|--------|----|
| 초등교원 | 43(71.7) | 1(1.7) | 5(8.3) | 5(8.3) | 5(8.3) | 1(1.7) | 60 |
| 중등 음악교원 | 36(60.0) | 6(10.0) | 4(6.7) | 6(10.0) | 6(10.0) | 2(3.3) | 60 |

국악지도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각 71.7%, 60%가 ‘지속적인 국악연수 실시’라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결과로 많은 초등교원과 중등교원들이 국악지도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국악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사항으로는 초등교원의 경우, ‘다양한 국악기 비치’, ‘대학에서의 직전교육 활성화’, ‘국악전공 교사의 방문교육’이 각각 8.3%의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중등교원의 경우 ‘충분한 학습자료 준비’, ‘대학에서의 직전교육 활성화’, ‘국악 전공교사의 방문교육’이 각각 10%의 응답을 얻었다.

2)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국악연수의 기회

현재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국악 연수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응답결과는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생각하는 교사들의 국악연수 기회

| | 매우 부족 | 부족 | 적절 | 충분 | 매우 충분 | 계 |
|------------|---------|----------|----------|--------|--------|----|
| 초등교원 | 8(13.3) | 46(76.7) | 5(8.3) | 1(1.7) | 0(0.0) | 60 |
| 중등 음악교원 | 7(11.7) | 39(65.0) | 11(18.3) | 2(3.3) | 1(1.7) | 60 |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교원은 90%가 국악연수의 기회가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도 76.7%가 국악연수의 기회가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종합하여보면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대부분이 국악연수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악 개인 연수 여부

초등·중등 음악교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국악연수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개인연수 여부

| | 국악동아리 활동 | 학교 자체 연수 | 독학 또는 참고도서 | 대학원 수학 | 사설학원 | 연수하고 있지 않음 | 계 |
|------------|-------------|-------------|---------------|-----------|---------|---------------|----|
| 초등교원 | 16(26.7) | 6(10.0) | 4(6.7) | 7(11.7) | 2(3.3) | 25(41.7) | 60 |
| 중등 음악교원 | 6(10.0) | 3(5.0) | 10(16.7) | 2(3.3) | 7(11.7) | 32(53.3) | 60 |

초등교원의 경우 58.4%가 개인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개인연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국악동아리 활동이 26.7%로 가장 많았고 11.7%가 대학원 수학, 10%가 학교 자체 연수, 6.7%가 독학 또는 참고도서, 3.3%가 사설학원에서 개인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원의 경우 46.7%가 개인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방식으로는 독학 또는 참고도서가 16.7%로 가장 많았고 사설학원이 11.7%, 국악동아리 활동이 10%, 학교 자체연수가 5%, 대학원 수학이 3.3%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많은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이 국악 관련 개인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교원이 중등 음악교원 보다 국악 관련 개인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방식을 살펴보면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국악동아리 활동이 가장 많았고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는 독학 또는 참고도서로 개인연수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1) 개인연수를 받는 이유

국악 관련 개인연수를 하고 있는 초등교원 35명과 중등 음악교원 28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응답결과는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개인연수 이유

| | 국악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 국악연수만으로는 지도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 국악연수도 도움이 되지만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 기타 | 계 |
|---------|----------------|-----------------------------------|----------------------------|--------|----|
| 초등교원 | 23(65.7) | 5(14.3) | 6(17.1) | 1(2.9) | 35 |
| 중등 음악교원 | 10(35.7) | 9(32.1) | 9(32.1) | 0(0.0) | 28 |

초등교원의 경우 국악 관련 개인연수를 하는 이유로 ‘국악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65.7%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국악연수도 도움이 되지만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가 17.1%를 차지하였다. ‘국악연수만으로는 지도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라고 대답한 교사들은 14.3%를 차지하였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도 역시 ‘국악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라는 대답이 35.7%로 가장 많았고 ‘국악연수도 도움이 되지만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라는 대답과 ‘국악연수만으로는 지도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라는 대답이 똑같이 32.1%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초등·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악 관련 개인연수를 하는 것이 국악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에 의한 이유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초등교원 보다 국악연수만으로는 지도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악연수 수강여부와 횟수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수강여부를 살펴보면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수강여부

| | 국악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 | 국악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 계 |
|------------|-------------------|-------------------|----|
| 초등교원 | 8(13.3) | 52(86.7) | 60 |
| 중등 음악교원 | 14(23.3) | 46(76.7) | 60 |

초등교원의 경우 86.7%가 국악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76.7%가 국악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위의 결과로 초등교원이 중등교원 보다 국악연수를 더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1) 국악연수 수강 횟수

국악연수를 받은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수강 횟수를 살펴보면 <표 III-17>, <표 III-18>과 같다.

<표 III-17> 초등교원의 연수 수강 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10회 | 10회 이상 | 15회 이상 | 20회 | 계 |
|--------------|-------------|------------|------------|------------|------------|------------|------------|------------|------------|----|
| 24 (46.2) | 9 (17.3) | 2 (3.8) | 2 (3.8) | 3 (5.8) | 1 (1.9) | 3 (5.8) | 1 (1.9) | 1 (1.9) | 2 (3.8) | 52 |

<표 III-18> 중등 음악교원의 연수 수강 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10회 | 계 |
|---------|----------|---------|--------|---------|--------|----|
| 7(15.2) | 23(50.0) | 6(13.0) | 4(8.7) | 5(10.9) | 1(2.2) | 46 |

초등교원의 연수 수강 회수를 살펴보면 1회를 받은 교원이 46.2%로 가장 많았고 2회 받은 교원이 17.3%, 5회와 10회 받은 교원이 5.8%, 3회, 4회, 20회 받은 교원이 각 3.8%, 6회와 10회 이상, 15회 이상 받은 교원이 1.9%였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연수를 2회 받은 교원이 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2%가 1회, 13%가 3회, 10.9%가 5회, 8.7%가 4회, 2.2%가 10회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에 관한 문항

설문대상 중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초등교원 8명과 중등 음악교원 14명에게 국악연수를 받지 못한 이유와 국악연수를 받는다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 국악연수를 받지 못한 이유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그동안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그동안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 | 나에게 국악연수 기회가 오지 않아서 | 나에게 기회가 온 적은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포기하였으므로 | 그동안 국악교육·국악연수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므로 | 계 |
|---------|---------------------|-----------------------------------|-----------------------------|----|
| 초등교원 | 1(12.5) | 5(62.5) | 2(25.0) | 8 |
| 중등 음악교원 | 5(35.7) | 9(64.3) | 0(0.0) | 14 |

먼저 초등교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동안 국악연수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나에게 기회가 온 적은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포기하였으므로’라는 응답이 62.5%로 가장 많았고 그동안 국악교육이나 국악연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응답이 25%를 차지하였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도 ‘나에게 기회가 온 적은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포기하였으므로’라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고 ‘나에게 국악연수 기회가 오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5.7%를 차지하였다. 국악교육이나 국악연수에 관심이 없었다는 응답은 없었다.

2) 국악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강 여부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초등·중등 음악교원들에게 앞으로 국악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였다. 그 응답결과는 <표 III-20>과 같다.

<표 III-20>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강여부

| | 꼭 연수를 받을 것이다 | 꼭 받고 싶다고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결정 |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받을 것이다 | 연수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 국악교육에 관심이 없다 | 계 |
|---------|--------------|----------------------------|--------------------------|----------------|--------------|----|
| 초등교원 | 1(12.5) | 3(37.5) | 4(50.0) | 0(0.0) | 0(0.0) | 8 |
| 중등 음악교원 | 4(28.6) | 3(21.4) | 7(50.0) | 0(0.0) | 0(0.0) | 14 |

초등교원의 경우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고 ‘꼭 받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결정’ 하겠다는 응답이 37.5%, 꼭 연수를 받겠다는 응답은 12.5%를 차지하였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도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고 꼭 연수를 받겠다는 응답이 28.6%, ‘꼭 받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결정’ 하겠다는 응답이 21.4%를 차지하였다.

3) 국악연수를 받는다면 원하는 프로그램 여부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들에게 만약 국악연수를 받는다면 어떤 내용이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바라는지 질문하였다. 이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그 응답결과는 <표 III-21>, <표 III-22>와 같다.

<표 III-21> 초등교원이 원하는 국악연수 프로그램

| 국악개론 | 한국음악사 | 국악기 이해 | 국악교육론 | 국악교수법 | 국악교재 교구 연구 | |
|-----------|---------|---------|---------|---------|------------|-------------|
| 1(12.5) | 1(12.5) | 3(37.5) | 1(12.5) | 5(62.5) | 2(25.0) | |
| 국악 컴퓨터 활용 | 국악가창 | 국악기악 | 국악창작 | 국악감상 | 작품발표회 | 분임토의 및 우수사례 |
| 1(12.5) | 6(75.0) | 7(87.5) | 3(37.5) | 4(50.0) | 2(25.0) | 0(0.0) |

<표 III-22> 중등 음악교원이 원하는 국악연수 프로그램

| 국악개론 | 한국음악사 | 국악기 이해 | 국악교육론 | 국악교수법 | 국악교재 교구 연구 | |
|-----------|---------|----------|---------|----------|------------|-------------|
| 1(7.1) | 2(14.3) | 1(7.1) | 2(14.3) | 10(71.4) | 2(14.3) | |
| 국악 컴퓨터 활용 | 국악가창 | 국악기악 | 국악창작 | 국악감상 | 작품발표회 | 분임토의 및 우수사례 |
| 3(21.4) | 9(64.3) | 12(85.7) | 2(14.3) | 4(28.6) | 1(7.1) | 2(14.3) |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국악기악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응답이 8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악가창이 75%, 국악교수법이 62.5% 국악감상이 50%, 국악창작이과 국악기 이해가 37.5%, 작품발표회가 25%, 국악개론, 국악교육론, 한국음악사, 국악 컴퓨터 활용이 각 12.5의 응답을 얻었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도 국악기악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악교수법이 71.4%, 국악가창이 64.3%, 국악감상이 28.6%, 국악컴퓨터 활용이 21.4%, 한국음악사, 국악교육론, 분임토의 및 우수사례가 14.3%, 국악개론과 국악기 이해, 작품발표회가 7.1%의 응답을 얻었다.

위의 결과로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악연수를 받는다면 국악 기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국악연수를 받은 교사에 관한 문항

국악연수를 받은 초등 교원 52명과 중등 음악교원 46명에게 국악연수의 참여한 목적과 만족도, 연수를 받으면서 아쉬웠던 점 등을 질문하였다.

1) 국악연수에 참여한 목적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국악연수에 참여한 목적을 살펴보면 <표 III-23>과 같다.

<표 III-23>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참여 목적

| | 음악시간에 국악 관련 교육과정의 원활한 학습지도를 위해 | 승진과 관련된 점수를 얻기 위해 | 학교당 할당된 연수 인원을 채우기 위해 | 음악 교과를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 특활부의 지도를 위해 | 기타 | 계 |
|---------|--------------------------------|-------------------|-----------------------|----------------------------|-------------|----------|----|
| 초등교원 | 34(65.4) | 0(0.0) | 0(0.0) | 0(0.0) | 8(15.4) | 10(19.2) | 52 |
| 중등 음악교원 | 33(71.7) | 1(2.2) | 1(2.2) | 9(19.6) | 2(4.3) | 0(0.0) | 46 |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음악시간에 국악 관련 교육과정의 원활한 학습지도를 위해’라는 응답이 각각 65.4%와 71.7%로 가장 많았다. 초등교원의 경우 두 번째로 ‘기타’라는 응답이 19.2%로 많았고, ‘특활부 지도를 위해’가 15.4%를 차지하였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음악교과를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로 19.6%였고 ‘특활부 지도를 위해’라는 응답이 4.3%, ‘승진과 관련된 점수를 얻기 위해’와 ‘학교당 할당된 연수 인원을 채우기 위해’라는 응답이 각각 2.2%를 차지하였다.

위의 결과로 많은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이 음악시간의 국악의 원활한 학습지도를 위해 국악연수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특활부 지도를 위해 국악연수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악연수 주최 기관

국악연수를 받은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에게 국악연수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질문하였다. 그 응답결과는 <표 III-24>, <표 III-25>와 같다.

<표 III-24> 초등학교원의 국악연수를 받은 기관

| 국립국악원 | 초등체육교과 교육연구회 | 서울 초·중등 풍물교육연구회 | 서울 초·중등 음악교과 교육연구회 | 서울 초·중등 전통타악 교육연구회 | 서울 초·중등 사물놀이교육 연구회 |
|-----------------|-----------------------|--------------------|-----------------------------|-----------------------------|--------------------------|
| 25(48.1) | 3(5.8) | 6(11.5) | 3(5.8) | 2(3.8) | 21(40.4) |
| 이화여대 음악교육연구소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 풍물교육연구소 | 우리가락 교육연구회 | 기타 | |
| 0(0.0) | 0(0.0) | 3(5.8) | 1(1.9) | 2(3.8) | |

<표 III-25> 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를 받은 기관

| 국립국악원 | 초등체육교과 교육연구회 | 서울 초·중등 풍물교육연구회 | 서울 초·중등 음악교과 교육연구회 | 서울 초·중등 전통타악 교육연구회 | 서울 초·중등 사물놀이교육 연구회 |
|-----------------|-----------------------|--------------------|-----------------------------|-----------------------------|--------------------------|
| 26(56.5) | 0(0.0) | 3(6.5) | 17(37.0) | 0(0.0) | 1(2.2) |
| 이화여대 음악교육연구소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 풍물교육연구소 | 우리가락 교육연구회 | 기타 | |
| 0(0.0) | 1(2.2) | 5(10.9) | 0(0.0) | 10(21.7) | |

초등학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이 국악연수를 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각 48.1%와 56.5%가 국립국악원에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원의 경우 두 번째로 연수를 많이 받은 기관은 서울 초·중등 사물놀이 교육연구회로 40.4%가 연수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11.5%가 서울 초·중등 풍물교육연구회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초등체육교과교육연구회와 서울 초·중등 음악교과교육연구회, 풍물교육연구소에서는 각각 5.8%가 받았다고 응답했고, 서울 초·중등 전통 타악 교육연구회와 기타 기관에서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두 번째로 연수를 많이 받은 기관은 서울 초·중등 음악교과교육연구회로 37%가 연수를 받았고, 21.7%는 기타 기관에서, 10.9%로는 풍물교육연구소, 6.5%는 서울 초·중등 풍물교육연구회, 서울 초·중등 사물놀이 교육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 각각 2.2%가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위의 결과로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립국악원에서 연수를 가장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과 그 이유

2회 이상 국악연수를 받은 초등·중등 음악교원에게 그동안 연수받았던 기관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과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응답결과는 <표 III-26>, <표 III-27>와 같다.

<표 III-26> 초등교원의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과 그 이유

| 연수기관 | 빈도(%) | 이유 | 전체 |
|--------------------|----------|--------------------------------------------------------------------------------------------------------------|----|
| 국립국악원 | 9(33.3) | ·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 풍부한 연수노하우 · 연수비용이 저렴, 알찬 연수내용, 우수한 교수법 · 좋은 환경과 수업 분위기, 의미 있는 발표회 | 27 |
| 초등체육교과교육연구회 | 1(3.7) | · 연수 장소가 가깝고 악기가 구비되어 있음 | |
| 풍물교육연구소 | 1(3.7) | · 우수한 강사진 | |
| 서울국악연구소 | 1(3.7) | · 짜임새 있는 강의 | |
| 초·중등사물놀이교육연구회 | 11(40.7) | · 수준별로 수업하기 때문에 쉽게 초보부터 익혀 점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 우수한 강사진과 쉬운 설명 · 현장에서 적용, 지도가 쉬움 ·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좋음 | |
| 서울 초·중등 풍물교육연구회 | 3(11.1) | · 강사진이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지도함 | |

| | | | |
|--------------------------|--------|------------------------|--|
| 서울 초·중등 음악교과교육 연구회 | 1(3.7) | · 전공자의 지도로 이론적인 면이 도움됨 | |
|--------------------------|--------|------------------------|--|

<표 III-27> 중등 음악교원의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과 그 이유

| 연수기관 | 빈도(%) | 이유 | 전체 |
|--------------------------|----------|----------------------------------------------------------------------------------------|----|
| 국립국악원 | 13(65.0) | · 전문적이고 우수한 강사진,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환경 · 직접 국악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음 · 체계적인 연수 진행, 긴 연수기간 | 20 |
| 국악교육 연구학회 | 1(5.0) | ·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의 구성 | |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교육연구소 | 1(5.0) | · 실기 위주의 수업 | |
| 초·중등사물놀이 교육연구회 | 1(5.0) | · 소규모 연수인원으로 효과적인 수업 | |
| 서울 초·중등 풍물교육연구회 | 3(15.0) | · 마지막 날 발표회가 도움 됨 | |
| 서울 초·중등 음악교과교육 연구회 | 1(5.0) | · 강사의 자세한 지도 | |

초등교원의 경우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으로 40.7%가 서울 초·중등 사물놀이교육연구회를, 33.3%는 국립국악원을 지목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서울 초·중등사물놀이교육연구회의 경우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며 우수한 강사진을 갖추고 있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고 공연을 한다는 이유였다. 국립국악원을 지목한 이유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와 풍부한 연수노하우, 좋은 환경, 발표회 등 이었다.

중등 음악교원은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으로 65.0%가 국립국악원을, 15%가 서울 초·중등 풍물교육연구회를 지목했다. 그 이유로는 국립국악원의 경우 전문적이고 우수한 강사진,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였고 서울 초·중등 풍물교육연구회의 경우 마지막 날 발표회가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다.

4)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국악 연수를 받은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전반적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표 III-28>과 같다.

<표 III-28>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계 |
|------------|----------|----------|----------|--------|--------|----|
| 초등교원 | 35(67.3) | 15(28.8) | 2(3.8) | 0(0.0) | 0(0.0) | 52 |
| 중등 음악교원 | 5(10.9) | 26(56.5) | 13(28.3) | 2(4.3) | 0(0.0) | 46 |

초등교원의 경우 전반적인 연수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67.3%로 가장 많았고 ‘만족’이라는 응답이 28.8%, ‘보통’이라는 응답이 3.8%였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는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10.9%, ‘만족’이라는 응답이 56.5%, ‘보통’이라는 응답이 28.3%,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4.3%를 차지하였다. 국악연수를 받은 대부분의 초등·중등 음악교원들은 전반적인 연수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교원들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 연수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운 점

국악연수를 받은 초등·중등 음악교원에게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응답은 <표 III-29>와 같다. 이번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III-29>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운 점

| | 교육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본적 | 교육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현장에 접목 어려움 | 연수 받을 때 마다 교육내용이 중복되고 연계가 안 됨 | 연수 프로그램 진행 미흡 및 강사의 역량 부족 | 연수 시간이 너무 짧음 | 방학 중에만 프로그 램이 편중 되어 있음 | 기타 | 계 |
|----------------|-----------------------------|------------------------------------------|-------------------------------------------------|------------------------------------------|-----------------------|------------------------------------------|------------|----|
| 초등 교원 | 7 (13.5) | 5 (9.6) | 7 (13.5) | 4 (7.7) | 12 (23.1) | 26 (50.0) | 2 (3.8) | 52 |
| 중등 음악 교원 | 12 (26.1) | 8 (17.8) | 11 (24.4) | 3 (6.7) | 3(6.7) | 8 (17.8) | 2 (4.4) | 46 |

이번 문항에서는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의 응답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초등교원의 경우 연수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 ‘방학 중에만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고 ‘연수시간이 너무 짧다’가 23.1%, ‘연수받을 때 마다 교육내용이 중복되고 연계가 안 됨’과 ‘교육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다’라는 응답이 각 13.5%, ‘교육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현장에 접목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9.6%, ‘연수프로그램 진행 미흡 및 강사의 역량 부족’이라는 응답이 7.7%를 차지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연수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다’라는 응답이 26.1%로 가장 많았고, ‘연수받을 때 마다 교육내용이 중복되고 연계가 안 됨’이라는 응답이 24.4%, ‘방학 중에만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다’와 ‘교육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현장에 접목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각 17.8%, ‘연수프로그램 진행 미흡 및 강사의 역량 부족’과 ‘연수시간이 너무 짧다’는 응답이 각 6.7%를 얻었다. 중등 음악교원의 기타의견으로도 역시 연수 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6) 국악 연수 교육내용과 교과서 내용의 부합 정도

국악 연수를 받은 초등·중등 음악교원에게 연수의 교육내용과 교과서 내용이 잘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응답은 <표 III-30>과 같다.

<표 III-30>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연수 교육내용과 교과서 내용의 부합 정도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계 |
|------------|----------|----------|----------|--------|-----------|----|
| 초등교원 | 18(34.6) | 24(46.2) | 7(13.5) | 3(5.8) | 0(0.0) | 52 |
| 중등 음악교원 | 3(6.5) | 26(56.5) | 13(28.3) | 4(8.7) | 0(0.0) | 46 |

초등 교원은 46.2%가 ‘그렇다’, 34.6%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여 대체로 연수 교육내용과 교과서 내용이 잘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등 음악교원도 ‘그렇다’가 56.5%로 가장 많았으나 ‘보통이다’가 28.3%로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고 ‘그렇지 않다’도 8.7%로 초등 교원의 응답비율 보다 높았다.

위의 결과로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연수 교육내용이 대체로 교과서 내용과 부합됨을 알 수 있으며 초등 교원의 국악 연수 교육내용이 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연수 보다 더 교과서 내용과 잘 부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바람직한 국악 연수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바람직한 국악 연수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표 III-31>과 같다.

<표 III-31>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바람직한 국악 연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

| | 전문적인 연주 실력을 갖추고 국악교육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의 역량 | 적정한 연수 인원 확보 및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 충분한 연수시간 확보 및 방학 중에 편중된 연수 프로그램의 연중분산 |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 국악기에만 편중된 프로그램 개선 및 국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실기 | 연수 비용의 무료혜택 | 계 |
|----------|---------------------------------------|------------------------------------|---------------------------------------|---------------------------|-----------------------------------------|-------------|----|
| 초등 교원 | 8(15.4) | 18(34.6) | 8(15.4) | 13(25.0) | 3(5.8) | 2(3.8) | 52 |
| 중등 음악 교원 | 4(8.7) | 14(30.4) | 4(8.7) | 20(43.5) | 3(6.5) | 1(2.2) | 46 |

초등교원의 경우 바람직한 국악 연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적정한 연수 인원확보 및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34.6%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25%, ‘전문적인 연주 실력을 갖추고 국악교육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의 역량’과 ‘충분한 연수 시간 확보 및 방학 중에 편중된 연수 프로그램의 연중분산’이 각 15.4%, ‘국악기에만 편중된 프로그램 개선 및 국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실기’가 5.8%, ‘연수비용의 무료혜택’이 3.8%의 응답을 얻었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는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43.5%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적정한 연수 인원확보 및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30.4%, ‘충분한 연수 시간 확보 및 방학 중에 편중된 연수 프로그램의 연중분산’과 ‘전문적인 연주 실력을 갖추고 국악교육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의 역량’이 각 8.7%, ‘국악기에만 편중된 프로그램 개선 및 국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실기’가 6.5%, ‘연수비용

의 무료혜택'이 2.2%의 응답을 얻었다.

위의 결과로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바람직한 국악 연수를 위해 적절한 연수 인원 확보 및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과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국악연수 후 수업에 대한 활용성

국악 연수를 받고 수업을 해본 초등·중등 음악교원에게 국악 연수 후 수업에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어떠한 점이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1) 국악 연수가 수업 지도에 도움이 되는 정도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국악 연수가 수업 지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표 III-32>와 같다.

<표 III-32>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연수가 수업 지도에 도움이 되는 정도

| | 매우 도움 | 도움 | 보통 | 도움 안 됨 | 매우 도움 안 됨 | 계 |
|------------|----------|----------|---------|--------|-----------|----|
| 초등교원 | 17(37.0) | 27(58.7) | 0(0.0) | 0(0.0) | 2(4.3) | 46 |
| 중등 음악교원 | 10(22.2) | 30(66.7) | 5(11.1) | 0(0.0) | 0(0.0) | 45 |

초등교원의 58.7%가 국악 연수가 수업지도에 ‘도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도움’이라는 응답도 37%로 상당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보통’이나 ‘도움 안 됨’이라는 응답은 없었으나 4.3%가 ‘매우 도움 안 됨’이라고 응답하였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66.7%가 ‘도움’, 22.2%가 ‘매우 도움’이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11.1%였다. ‘도움 안 됨’이나 ‘매우 도움 안 됨’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위의 결과로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대부분 국악 연수가 수업 지도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수 내용 중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 받은 내용과 정도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에게 국악 연수 이수 후 연수 내용 중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 받은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 응답결과는 <표 Ⅲ-33>, <표 Ⅲ-34>와 같다.

<표 Ⅲ-33> 초등교원의 국악 연수 내용이 지도에 도움 받은 정도

| 영역 | 내용 | 매우 도움 | 도움 | 보통 | 도움 안 됨 | 매우 도움 안 됨 |
|-------|------------------------------|--------------|--------------|-------------|------------|--------------|
| 국악 이론 | 1) 국악개론(국악총론, 국악통론) | 7 (15.2) | 7 (15.2) | 6 (13.0) | 2 (4.3) | 24 (52.2) |
| | 2) 한국음악사 | 8 (17.4) | 8 (17.4) | 6 (13.0) | 1 (2.2) | 23 (50.0) |
| | 3) 국악기 이해 | 13 (28.3) | 9 (19.6) | 7 (15.2) | 0 (0.0) | 17 (37.0) |
| 국악 교육 | 1) 국악교육론 | 9 (19.6) | 9 (19.6) | 5 (10.9) | 3 (6.5) | 20 (43.5) |
| | 2) 국악교수법(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법) | 15 (32.6) | 10 (21.7) | 5 (10.9) | 1 (2.2) | 15 (32.6) |
| | 3) 국악교재 및 교구의 연구 | 9 (19.6) | 8 (17.4) | 7 (15.2) | 0 (0.0) | 22 (47.8) |

| | | | | | | |
|------|------------------------------------------------|--------------|--------------|--------------|------------|--------------|
| | 4) 국악 컴퓨터 활용 방법론 (소프트웨어 및 ICT를 활용한 국악교육방법론) | 5 (10.9) | 7 (15.2) | 6 (13.0) | 4 (8.7) | 24 (52.2) |
| 국악실기 | 1) 국악 가창 (교과서 속 국악 제재곡, 국악 동요, 민요 등) | 17 (37.0) | 13 (28.0) | 5 (10.9) | 0 (0.0) | 11 (23.9) |
| | 2) 국악 기악 (장구, 단소, 그 외의 국악기 연주, 풍물놀이) | 30 (65.2) | 13 (28.3) | 1 (2.2) | 0 (0.0) | 2 (4.3) |
| | 3) 국악 창작(국악동요 작곡 및 편곡법) | 8 (17.4) | 5 (10.9) | 6 (13.0) | 3 (6.5) | 24 (52.2) |
| | 4) 국악 감상 (감상법 및 전공자 및 강사의 국악공연 감상) | 11 (23.9) | 7 (15.2) | 8 (17.4) | 3 (6.5) | 17 (37.0) |
| 기타 | 1) 작품발표회 | 17 (37.0) | 10 (21.7) | 2 (4.3) | 0 (0.0) | 17 (37.0) |
| | 2) 분임 토의 및 국악교육 우수사례 발표 | 8 (17.4) | 5 (10.9) | 10 (21.7) | 2 (4.3) | 21 (45.7) |

<표 III-34> 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연수 내용이 지도에 도움 받은 정도

| 영역 | 내용 | 매우 도움 | 도움 | 보통 | 도움 안 됨 | 매우 도움 안 됨 |
|------|------------------------------------------------|--------------|--------------|--------------|-------------|--------------|
| 국악이론 | 1) 국악개론(국악총론, 국악통론) | 5 (11.1) | 13 (28.9) | 15 (33.3) | 1 (2.2) | 11 (24.4) |
| | 2) 한국음악사 | 4 (8.9) | 8 (17.8) | 14 (31.1) | 7 (15.6) | 12 (26.7) |
| | 3) 국악기 이해 | 9 (20.0) | 17 (37.8) | 8 (17.8) | 2 (4.4) | 9 (20.0) |
| 국악교육 | 1) 국악교육론 | 3 (6.7) | 8 (17.8) | 17 (37.8) | 4 (8.9) | 13 (28.9) |
| | 2) 국악교수법(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법) | 4 (8.9) | 22 (48.9) | 9 (20.0) | 3 (6.7) | 7 (15.6) |
| | 3) 국악교재 및 교구의 연구 | 2 (4.4) | 8 (17.8) | 15 (33.3) | 3 (6.7) | 17 (37.8) |
| | 4) 국악 컴퓨터 활용 방법론 (소프트웨어 및 ICT를 활용한 국악교육방법론) | 2 (4.4) | 5 (11.1) | 11 (24.4) | 8 (17.8) | 19 (42.2) |
| 국악실기 | 1) 국악 가창 (교과서 속 국악 제재곡, 국악 동요, 민요 등) | 8 (17.8) | 19 (42.2) | 11 (24.4) | 3 (6.7) | 4 (8.9) |
| | 2) 국악 기악 (장구, 단소, 그 외의 국악기 연주, 풍물놀이) | 15 (33.3) | 23 (51.1) | 3 (6.7) | 2 (4.4) | 2 (4.4) |

| | | | | | | |
|--------|---------------------------------------|-------------|--------------|--------------|-----------------|--------------|
| | 3) 국악 창작(국악동요 작곡 및 편곡법) | 2 (4.4) | 1 (2.2) | 13 (28.9) | 8 (17.8) | 21 (46.7) |
| | 4) 국악 감상 (감상법 및 전공자 및 강사의 국악공연 감상) | 5 (11.1) | 10 (22.2) | 10 (22.2) | 3 (6.7) | 17 (37.8) |
| 기 타 | 1) 작품발표회 | 4 (8.9) | 5 (11.1) | 8 (17.8) | 7 (15.6) | 21 (46.7) |
| | 2) 분임 토의 및 국악교육 우수사례 발표 | 3 (6.7) | 1 (2.2) | 11 (24.4) | 8 (17.8) | 22 (48.9) |

연수 내용 중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된 내용 중 많은 응답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 교원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내용은 ‘국악 기악(장구, 단소, 그 외의 국악기 연주)’으로 93.5%가 매우 도움 혹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도움을 많이 받은 내용은 ‘국악 가창’이 65%, 작품발표회가 58.7%, 국악교수법(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법)이 54.3%가 매우 도움 혹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중등 음악교원 역시 ‘국악 기악(장구, 단소, 그 외의 국악기 연주)’이 84.4%가 매우 도움 혹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내용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 도움을 많이 받은 내용은 ‘국악 가창’이 60%, ‘국악기 이해’가 57.8%, ‘국악교수법(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법)’이 57.5%가 매우 도움 혹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결과로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연수 내용 중 국악기악과 국악가창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국악 연수가 학생 국악교육 지도에 도움이 되는 점

국악 연수가 학생 국악교육 지도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표 III-35>와 같다.

<표 III-35>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연수가 학생 국악교육 지도에 도움이 되는 점

| | 국악 이론 등의 지식 함양 | 학생들에게 국악 지도 할 때 자신감의 향상 | 민요창, 국악기 연주 등의 실기능력 향상 | 국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 | 기타 | 계 |
|---------|----------------|-------------------------|------------------------|-----------------|--------|----|
| 초등교원 | 2(4.3) | 23(50.0) | 17(37.0) | 1(2.2) | 3(6.5) | 46 |
| 중등 음악교원 | 1(2.2) | 22(48.9) | 17(37.8) | 3(6.7) | 2(4.4) | 45 |

초등교원의 경우 ‘학생들에게 국악을 지도 할 때 자신감의 향상’이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민요창, 국악기 연주 등의 실기능력 향상’이 37%, ‘기타’가 6.5%, ‘국악 이론 등의 지식 함양’이 4.3%, ‘국악의 전반적인 흐름 이해’가 2.2%의 응답을 얻었다.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역시 ‘학생들에게 국악을 지도 할 때 자신감의 향상’이 48.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민요창, 국악기 연주 등의 실기능력 향상’이 37.8%, ‘국악의 전반적인 흐름 이해’가 6.7%, ‘기타’의견이 4.4%, ‘국악 이론 등의 지식함양’이 2.2%의 응답을 얻었다.

위의 결과로 대부분의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이 국악연수를 받음으로써 국악을 지도할 때 자신감의 향상이나 민요창·국악기 연주 등 실기능력 향상에 대한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IV.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 결과와 국악연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초·중등 교원의 국악지도 능력 실태

Ⅲ장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음악시간에 국악보다 양악을 더 수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초등교원이 중등 음악교원보다 국악을 많이 수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이 국악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국악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교사들이 국악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권은정의 연구³⁷⁾에서는 총 230명의 초등 교사 중 74.7%가 국악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은경의 연구³⁸⁾에서도 조사 대상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의 교사들이 국악 수업에 자신 없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국악을 잘 지도하려면 국악 지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수 기회를 늘리고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악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초등 교원은 기악영역, 중등 음악교원은 가창영역으로 나타났고 거의 모든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37) 권은정(2007), 전계서. p.41

38) 정은경(2011), 전계서. p.87

이 단소나 장구의 지도가 가능하였으며 초등 교원 보다 중등 음악교원의 단소나 장구의 실기 지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이 민요나 전래동요를 지도할 때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따라 부르도록 지도하고 있었는데, 초등교원 보다 중등 음악교원이 교과서의 제재 곡을 직접 장구 반주를 하며 지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초등 교원이 ICT 및 멀티미디어 자료에 의존하여 국악을 가르치는 것은 정은경의 연구³⁹⁾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중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중등 음악교원이 초등 교원 보다 단소·장구의 실기 지도 능력이 뛰어나고 민요나 전래동요도 직접 장구 반주를 하며 지도하는 교사들이 더 많은데, 중등 음악교원 보다 초등교원이 수업시간에 국악을 더 많이 가르친다는 점이다.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2가지의 국악기가 연주 가능한 교사들이 가장 많으며 그 2가지 악기는 대부분 장구와 단소임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중등 음악교원이 장구와 단소를 다룰 수 있는 사실은 송지혜의 연구⁴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국악연수에 관한 교사들의 의견

초등·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악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지속적인 국악연수의 실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국악연수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국악연수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권덕원의 연구⁴¹⁾를 통해

39) 정은경(2011), 전계서. p.87

40) 송지혜(2002), 전계서. p.51

41) 권덕원(2005), 전계서. p.48

서도 국악연수의 기회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이 국악 관련 개인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초등·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악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가. 국악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의견

국악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국악연수를 받은 대부분의 초등·중등 음악교원이 음악시간에 국악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원활한 학습지도를 목적으로 국악연수에 참여했으며, 초등·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연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스러운 연수기관은 국립국악원과 초·중등 사물놀이교육연구회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국립국악원의 경우 전문적이고 우수한 강사진과 체계적인 연수진행, 다양한 프로그램과 좋은 환경 등의 이유였고 초·중등 사물놀이교육연구회의 경우 수준별 수업과 우수한 강사진, 현장에서의 적용이 쉬운 프로그램과 소규모 인원의 효과적인 수업 등의 이유였다. 이 결과로 교사들이 어떤 연수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중등 음악교원 모두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등교원의 만족도가 중등 음악교원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 초등교원이 국악연수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은 정은경의 연구⁴²⁾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연수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초등교원들은 방학 중에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지적이 가장

42) 정은경(2011), 전계서. p.89

많았다.

또한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모두 국악 연수 교육내용과 교과서 내용이 대체로 잘 부합되어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바람직한 국악연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는 초등·중등 음악교원 모두 적절한 연수 인원확보 및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과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많은 응답을 얻었다.

나. 국악연수 후 수업에 대한 활용성에 관한 의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악연수가 수업지도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악 연수 내용 중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된 과목으로는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악기악 과목과 국악가창과목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초등 교원의 경우에는 작품발표회 또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이 국악연수를 받음으로써 학교에서 국악을 지도할 때 자신감의 향상이나 민요창·국악기 연주 등 실기능력 향상에 대한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최지유의 연구⁴³⁾에서도 대부분의 중등 음악교원들이 국악 연수 후 기악연주 능력의 향상과 학생을 지도할 때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최지유(2004), 전계서. p.46

다.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들의 의견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연수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포기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국악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강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초등·중등 음악교원 모두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수강하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들이 수강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초등·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악 기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국악교수법과 국악가창 관련 프로그램 순서로 나타났다.

3. 국악연수 개선방안

국악연수 운영 실태와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악연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악연수의 기회를 늘리고 방학 중에 편중된 연수프로그램을 분산하여 학기 중에도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이 국악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가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많은 초등교원과 중등음악교원이 국악지도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악연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국악연수의 기회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설문대상 중 50%의 초등교원과 17.8%의 중등 음악교원이 연수 프로그램에 아쉬운 점으로 방학 중에만 편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하여 방학 중에만 편중되어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연중 분산

하고 국악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국악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총 44개의 과목 중 대부분 풍물놀이와 같은 타악기 강습 과목이고 소금을 배우는 과목 4개, 장구 및 시조과목 2개, 판소리와 이론 과목 2개, 장구 및 단소강습 과목 1개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의 과목 6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악 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초등학교원의 경우 38.3%가 기악영역, 근소한 차이로 36.7%가 가창영역이라고 응답했고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도 38.3%가 가창영역, 26.7%가 기악영역과 창작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많은 초등학교원과 중등 음악교원들이 가창영역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창영역과 관련된 과목은 단 4과목 뿐 이다. 또한 기악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대부분 풍물놀이와 같은 타악기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으며 창작영역과 관련된 과목은 한 과목도 개설되지 않았고 감상영역과 관련된 과목을 지목하면 ‘서울초등풍물교육연구회’의 ‘음악 교육과정 감상영역의 사물놀이 지도법 1기·2기’과목을 지목할 수 있겠다. 이렇듯 현재 국악 연수 프로그램은 과목 구성이 다소 편협한 실정이다. 국악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사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교사들이 만족스러운 연수프로그램의 이유로 ‘현장에 적용하기 쉬운 내용이어서’라고 응답했고, 국악 연수를 받은 대부분의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은 국악 연수의 참여한 목적을 ‘음악시간에 국악 관련 교육과정의 원활한 학습지도를 위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 연수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 ‘교육내용이 너무 광범

위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교사들이 학교에서 국악을 지도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연수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이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연수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연수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국악 연수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지도할 내용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악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연수강사는 해박한 이론지식이나 뛰어난 실기능력을 넘어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잘 이해하는 강사가 연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을 잘 이해하는 강사가 연수를 진행할 때 현장에 접목하기 쉬운 효율적인 연수가 될 것이다.

다섯째, 국악 연수 프로그램을 학교급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악 연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많은 연수 프로그램의 계획인원이 초등학교원의 비중이 더 많거나, 학교급별로 상관없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수 프로그램의 계획인원이 초등학교원이 더 많을 경우 초등학교원 위주의 연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초등 교원의 경우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96.1%를 차지하는 반면에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는 67.4%를 차지하였다. 프로그램의 계획인원이 초등학교원이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학교급에 상관없이 계획인원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학교급에 따른 자세한 내용의 연수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09 음악과 교육과정⁴⁴⁾을 보면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내용과 수준에 알맞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학년별로는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하

4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12], p.8

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학교급별로는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적절한 연수 인원과 충분한 연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연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많은 계획인원과 짧은 연수 기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의 이유에서 ‘긴 연수기간’과 ‘소규모 인원의 효과적인 수업’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바람직한 국악 연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적절한 연수 인원 확보 및 개별지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이 초등학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각각 34.6%와 30.4%로 적지 않은 응답을 얻었다.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 적절한 연수 인원과 충분한 연수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일곱째, 연수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진행하고 수업 내용이 연계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등 사물놀이 교육연구회’의 경우 초등 교원들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이라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수준별로 수업하기 때문에 초보부터 익혀 점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에 대한 문항에서도 초등학교원의 13.5%, 중등 음악교원의 24.4%가 ‘연수 받을 때 마다 교육내용이 중복되고 연계가 안 됨’이라고 응답하였다. 연수 내용이 초급단계라면 경험이 많은 교사들에게는 시시한 연수가 될 것이고, 연수 내용이 어렵다면 국악이 생소한 교사들에게는 힘든 연수가 될 것이므로 국악연수를 ‘기본단계’와 ‘고급단계’ 그리고 ‘심화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여⁴⁵⁾ 각자의 수준에 적절한 단계의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5) 권덕원(2005), 전계서. p.63

V.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악연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악연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악연수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 교원 60명과 중등 음악교원 60명의 설문을 통하여 현재 교사들의 국악지도 능력과 국악 연수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악연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악연수의 운영 실태와 초등·중등 음악교원을 대상으로 한 국악연수 실태조사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악연수 운영실태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2011년 국악 관련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짧은 연수 시간과 많은 계획인원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들도 사물놀이와 같은 타악기를 배우는 과목이 대부분으로 편협한 실정이었다. 또한 계획인원이 초등교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따라서 연수 시간을 늘리고 소규모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사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급별로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급에 맞는 전문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모두 음악시간에 국악보다 양악을 많이 수업하며, 많은 교사들이 국악 지도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교사 자신의 국악 지도 능력이 부

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많은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들이 멀티미디어 자료에 의존하여 민요나 전래동요를 지도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의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한 폭넓은 국악 연수 시행의 필요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교사의 국악지도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악연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현재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국악 연수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국악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들의 연수를 받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나에게 기회가 온 적은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포기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악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받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국악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면 국악연수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연수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기관은 국립국악원과 초·중등 사물놀이 교육연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가 만족스러웠던 이유를 살펴보면 국립국악원의 경우 좋은 환경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진, 알찬 연수내용과 긴 연수기간 등의 이유였고 초·중등 사물놀이 교육연구회의 경우 소규모 인원의 효율적인 수업과 우수한 강사진, 수준별로 진행되는 수업, 현장에서 적용·지도가 쉬운 내용의 수업 등의 이유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원들이 어떤 국악연수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여섯째, 국악연수를 받은 대부분의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만족도는 중등 음악교원 보다 초등교원이 28.7%나 더 높았다. 연수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으로는 초등 교원의 경우 ‘방학 중에만 편중된 프로그램’이,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본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일곱째, 바람직한 국악연수의 요건으로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 모두 적절한 연수 인원 확보 및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과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원하고 있었다.

여덟째, 국악연수가 초등 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의 실제 수업지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지도에 도움을 많이 받은 내용으로는 초등 교원의 경우 국악기악과 국악가창, 작품발표회와 국악교수법, 중등 음악교원의 경우에는 국악기악과 국악 가창, 국악기 이해와 국악교수법이였다. 또한 국악연수를 받은 대부분의 초·중등 교원이 국악연수를 받음으로써 국악을 지도할 때 자신감의 향상이나 민요창·국악기 연주 등 실기능력 향상에 대한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국악연수 운영 실태와 초등·중등 음악교원의 국악연수 실태조사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악연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악연수의 기회를 늘리고 방학 중에 편중된 연수프로그램을 분산하여 학기 중에도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악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사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이 학교에서 국악을 지도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들의 실제적인 국악교육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연수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넷째, 국악 연수 프로그램을 학교급별로 구성하여 학교급에 맞는 전문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하며 적절한 연수 인원과 충분한 연수 시간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연수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진행하여 교사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업 내용이 연계가 되도록 연수 프로

그램을 구성하여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악연수가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의 국악 지도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국악 지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국악연수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이 개선된다면 교사들의 국악 지도능력 향상에 지금 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교사들이 국악 지도를 어렵게 느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국악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수 프로그램이 많이 구안되고 연구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전(2002),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서울: 도서출판 하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학편찬위원회(1989), 「교육학대사전」.

권덕원·황병훈·송정희·박주만(2009), 「국악교육론」,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
사.

민경훈·김신영·김용희·방금주·승윤희·양종모·이연경·임미경·장기범·조순이·주대창
·현경실 (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신대철(2003), 「우리음악, 그 맛과 소리깔」, 서울: 도서출판 민속원.

신현석(2010), 「한국의 교원정책」, 서울: (주)학지사.

원희(1994), 「코다이와 유아 음악교육」, 서울: 창지사.

이운식·김병찬·김정휘·박남기·박영숙·송광용·이성은·전제상·정영수·정일환·조
동섭·진동섭·최상근·허병기(2007), 「교직과 교사」, 서울: (주)학지사.

<논문>

강향자(2011),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10학년 음악 교과서 분석 : 가창
영역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백진(2004), “교원 현직연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인
식 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곽은아(2011), “국악관련 특수분야 교원연수에 관한 연구”, 국악교육, 제 31
집

권덕원(2005), “교사들을 위한 국악연수 프로그램 개선방안”, 국악과 교육, 제

- 23집, 한국국악교육학회.
- 권은정(2007), “국악연수가 초등교사의 국악지도 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김중두·장경숙(2004), “유치원·초등·중등 교사 연수프로그램의 실태분석”, **교육발전**.
- 김미호(2008), “음악과 교원연수 실태조사 연구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2009), “초등음악 교육현장에서 국악연수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영(2002), “초·중등교원 연수의 국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재 연수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아(2009), “초·중등교원 국악연수 프로그램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2006),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사 국악연수 실태조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화(1992), “국악교육을 위하여”, **국악교육**, 제 10집, 한국국악교육학회.
- 송세영(2005), “호흡과 움직임에 의한 사물놀이 삼도풍물 분석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혜(2002), “국악연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중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천(1994), “우리는 왜 국악을 가르쳐야 하는가”, **국악월보**.
- 이윤식(2005), “교원연수체제의 개편과 교사의 자세”, **교학상장**, 41, 인천교육청.
- 정은경(2011), “‘2007 개정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국악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제 22권, 제 1호.

최지유(2004), “제 7차 교육과정의 국악 분야 강화에 따른 음악교사 국악연
수의 현황 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Investigation of the state of teacher train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and ways to improve the teacher training

Young sun, Cho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eacher train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eachers and to present ways for effective training order to enhance the teaching abilit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eachers.

In this study, I conducted survey on 60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60 middle school teachers to investigate the current teacher train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eachers and the their ability to teach Korean traditional music. Based on this survey, I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teacher train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each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st teacher training programs reported that the training programs were not efficient due to insufficient amount of time and too many participating teachers.

Second, both middle school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spending more time teaching Western music more than they were teaching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usic class, and many teachers were shown to experience difficulty when they teach Korean traditional music.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hey feel difficultly was the lack of their confidence in teaching ability. Moreover, many teachers were teaching Chunledongyo (Korean traditional children's song) and Minyo by using multimedia.

Third, both middle school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fel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m to receive continuous teacher training to improve their teaching ability, but they felt that the teacher training opportunities are insufficient.

Fourth, the biggest reason why the teachers did not participate in the training programs was because gave up the opportunities for other reasons although they were given the opportunities. The teachers' biggest response was that they would participate in the training programs if the programs are useful and if they are presented with the opportunities.

Fifth, most of the teachers who received training participated in the program provid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he training institutes with which the teachers were most satisfied were found to be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Samulnori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he teachers found them satisfying because of good teaching environment, professional teacher trainers, efficient classes with a small number of trainees, level-based classes, and the high applicability to their actual classes.

Sixth, most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teacher training programs were found to be satisfied with the programs.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as higher than that of middle school teachers. As for limitations,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ointed out that most programs were provided during the vacation, and the middle school teachers pointed out that the training contents were too comprehensive yet basic.

Seventh, both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teachers think that the conditions to improve these trainings are appropriate number of trainees, conditions to receive individual teaching and the programs that have applicability to actual classroom.

Eighth,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 training programs in Korea traditional music are helpful for them to teach students in practice. Based on the findings above, I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teacher training program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First, teachers should have more opportunities to receive training.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m to have these opportunities even

during the semesters by reassigning the programs that are concentrated during the vac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training programs so that teachers can take courses that they need.

Third, we need to develop highly applicable teacher training programs. Furthermore, it is crucial to employ teacher trainers who are well-experienced in real classes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teacher training.

Fourth, these trainings should be designed according to level of schools so that the teachers can receive professional training that is appropriate for them. It is also important to secure sufficient training time and assign appropriate number of people so that the training programs become more efficient.

Fifth, it is crucial to run the training programs based on the teachers' level so that the teachers can take suitable training courses for themselves. Moreover, in order to enhance the teachers' teaching abilit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e need to organize the training programs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the school curriculum and contents.

◎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 하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0번까지는 모든 선생님들이 응답하시는 문항이며 11~13번까지는 국악연수의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 14번~20번까지는 국악연수의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 21번~23번까지는 국악연수 후 수업에 적용해보신 선생님들께서 응답하시는 문항입니다.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

1.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수업내용 중 양악과 국악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인니까?

- ① 국악만 수업 한다. ()
- ② 양악보다 국악을 더 많이 한다. ()
- ③ 양악과 국악 반반 씩 수업한다. ()
- ④ 국악보다 양악을 더 많이 한다. ()
- ⑤ 양악만 수업 한다. ()

2. 선생님은 국악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①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 ② 어려움을 느낀다. ()
- ③ 보통이다. () ④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 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 있다. ()

2-1. 위 문항에서 ①, ②에 표시를 하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 부족 ()
- ② 현장의 국악 교육 환경 미확보 ()
- ③ 국악 지도 내용이 많음 ()
- ④ 기타 () _____

3. 국악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어느 영역의 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① 가창영역 ()
- ② 기악영역 ()
- ③ 창작영역 ()
- ④ 감상영역 ()

4. 장구나 단소로 실기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 ① 곡의 특징에 맞게 지도할 수 있다. ()
- ② 기본 음계나 운지법, 장단은 지도 할 수 있다. ()
- ③ 전혀 할 수 없다. ()

5. 민요나 전래동요는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 ① 교과서의 체재 곡을 직접 장구 반주를 하며 지도한다. ()
- ② 장구 반주는 못하지만 직접 시범을 보이며 따라 부르게 한다. ()
- ③ 악보대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지도한다. ()
- ④ 멀티미디어 자료(CD, mp3, 테잎 자료 등)를 활용하여 따라 부르게 한다. ()
- ⑤ 동료 교사나 국악 교과 전담 교사에게 부탁한다. ()

6. 연주가 가능한 국악기는 무엇입니까? (악기명을 적어주십시오)

- ① 1가지 () ② 2가지 () ③ 3가지 ()
- ④ 4가지 () ⑤ 5가지 이상 ()

<국악연수에 관한 질문>

7. 교사의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속적인 국악 연수 실시 () ② 충분한 학습 자료 준비 ()
- ③ 다양한 국악기 비치 () ④ 대학에서의 직전 교육 활성화 ()
- ⑤ 국악 전공 교사의 방문 교육 () ⑥ 기타 () _____

8. 현재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국악 연수의 기회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부족하다 () ③ 적절하다 ()
- ④ 충분하다 () ⑤ 매우 충분하다 ()

9. 국악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 연수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① 국악 동아리 활동 () ② 학교 자체 연수 ()
- ③ 독학 또는 참고 도서 () ④ 대학원 수학 ()
- ⑤ 사설학원 () ⑥ 연수하고 있지 않음 ()

9-1. 개인 연수를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국악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
- ② 국악연수만으로는 지도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
- ③ 국악연수도 도움이 되지만,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
- ④ 기타 () _____

10. 선생님은 국악 연수를 몇 회 받으셨습니까?

- ① 없다 () → 11번 문항으로 가서서 13번 문항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있다, 횟수 ()회 → 14번 문항으로 가서서 23번 문항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선생님들만 응답하시는 문항입니다.>

11. 그동안 연수를 받지 못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나에게 국악 연수 기회가 오지 않아서 ()
- ② 나에게 국악 연수 기회가 온 적이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내가 포기하였으므로()
- ③ 그동안 내가 국악교육이나 국악연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으므로 ()

12. 선생님에게 앞으로 국악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꼭 연수를 받을 것이다 ()
- ② 꼭 받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결정 하겠다 ()
- ③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받을 것이다. ()
- ④ 연수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
- ⑤ 국악교육에 관심이 없다 ()

13. 연수를 받으신다면 어떤 내용이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길 바라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영역 | 내용 | |
|------|---------------------------------------------|--|
| 국악이론 | 1) 국악개론(국악총론, 국악통론) | |
| | 2) 한국음악사 | |
| | 3) 국악기 이해 | |
| 국악교육 | 1) 국악교육론 | |
| | 2) 국악교수법(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법) | |
| | 3) 국악 교재 및 교구의 연구 | |
| | 4) 국악 컴퓨터 활용 방법론(소프트 웨어 및 ICT를 활용한 국악교육방법론) | |
| 국악실기 | 1) 국악 가창(교과서 속 국악 제재곡, 국악 동요, 민요 등) | |
| | 2) 국악 기악 (장구, 단소, 그 외의 국악기 연주, 풍물놀이 등) | |
| | 3) 국악창작(국악동요 작곡 및 편곡법) | |
| | 4) 국악 감상(감상법 및 전공자 및 강사의 국악 공연 감상) | |
| 기타 | 1) 작품발표회 | |
| | 2) 분임 토의 및 국악교육 우수사례 발표 | |
| | 그 외의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

<국악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만 응답하시는 문항입니다>

14. 국악 연수의 참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음악시간에 국악 관련 교육과정의 학습지도를 원활하게 하고 싶어서 ()
- ② 승진과 관련된 점수를 얻기 위해서 ()
- ③ 학교당 할당된 연수 인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
- ④ 음악 교과를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
- ⑤ 특활부(풍물놀이부, 판소리부 등)의 지도를 하기 위해 ()
- ⑥ 기타 () _____

15. 국악 연수를 받으셨다면 주최한 기간이 어디입니까?

- ① 국립국악원 () ② 초등체육교과교육연구회 ()
- ③ 서울 초·중등 풍물교육연구회 () ④ 서울 초·중등 음악교과교육연구회 ()
- ⑤ 서울 초·중등 전통타악교육연구회 () ⑥ 서울 초·중등 사물놀이교육연구회 ()
- ⑦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교육연구소 () ⑧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 ⑨ 풍물교육연구소 () ⑩ 우리가락교육연구회 ()
- ⑪ 기타 () _____

15-1. 연수를 2회 이상 받으신 선생님이시라면, 연수를 받으신 후 가장 만족스러웠던 기관과 그 이유를 간략히 적어주십시오.

기관명 ()

이유 ()

16. 국악 연수를 받으신 후 전반적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

17. 국악 연수를 받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교육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다 ()
- ② 교육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현장에 접목하기 어렵다 ()
- ③ 연수 받을 때 마다 교육내용이 중복되고 교육내용이 연계가 되지 않음 ()
- ④ 연수 프로그램의 미흡한 진행 및 강사의 역량이 부족하다 ()
- ⑤ 연수 시간이 너무 짧다 ()
- ⑥ 방학 중에만 연수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다 ()
- ⑦ 기타 () _____

18. 국악 연수를 통하여 연수 받은 과목(실기, 이론)의 실력이 향상되었습니까?

- ① 매우 향상되었다. () ② 향상된 편이다. ()
- ③ 종전 실력과 비슷하다. ()

19. 국악 연수 교육 내용이 교과서 내용과 잘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20. 바람직한 국악 연수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적인 연주 실력을 갖추고 국악교육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의 역량 ()
- ② 적절한 연수 인원을 확보하여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
- ③ 충분한 연수 시간 확보 및 방학 중에 편중된 연수 프로그램의 연중 분산 ()
- ④ 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
- ⑤ 국악기에만 편중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국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 실기 ()
- ⑥ 연수비용의 무료 혜택 ()
- ⑦ 기타 의견 () _____

<다음은 국악 연수를 받은 후 국악 수업을 해보신 선생님들만 응답하시는 문항입니다.>

21. 국악 연수를 받으신 후 그 내용이 선생님의 수업지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반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 ① 매우 도움 () ② 도움 () ③ 보통 ()
- ④ 도움 안 됨 () ⑤ 전혀 도움 안 됨 ()

